

# 근대 ‘소녀’의 탄생과 ‘소녀성’의 창안

김경연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목차

- 1 ‘소년 대한’의 기획과 ‘소녀’
- 2 소녀 독자의 부상과 ‘여학생 잡지’『신여성』
- 3 ‘춘정발동기’ 소녀시대와 ‘소녀성’의 발명
- 4 ‘불량소녀’의 전시와 소녀 길들이기
- 5 나가며-소녀의 근대를 탐사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2021년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의미 있는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글은 근대계몽기 이래 ‘소년 대한’을 실현하고 민족 개조를 선도할 주체로 ‘소년(성)’을 상상해온 가부장적 기획 속에서 ‘소년’의 구성적 외부로 존재했던 ‘소녀’의 근대를 탐사하기 위해, 먼저 ‘소년’과 변별되는 ‘소녀’라는 젠더 표시가 구축되고 담론화되는 양상을 천착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1900년대 전후부터 1910년대를 경유하면서 근대 미디어를 통해 ‘소녀’라는 신어(新語)가 출현하고, 1920년대 이후 여성 교육이 확대되면서 가시적 존재로 부상한 ‘여학생’을 통해 소년과 (비)대칭적인 표상의 ‘소녀’가 본격적으로 창안되는 상황을 살폈다. 특히 여학생을 주요 독자로 호명하고 여학생과 관련한 담론을 생산하면서 사실상 최초로 여학생을 표준한 대중잡지를 표방했던 『신여성』을 근대적 표상으로서의 ‘소녀(성)’를 발명한 유력한 시원적 매체로 재독했다. 『신여성』은 청소년기 여학생에 관한 본격적 공론장이자 여학생을 독자나 혹은 필자로 발탁하고 ‘여학생/소녀’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한 매체로 역할했으나, 기실 『신여성』에서 여학생/소녀는 시선의 주체보다 응시의 대상이 되며 발화하기보다 빈번히 대변되는 존재로 조형되었다. 다시 말해 미래의 현모양처로 소녀를 훈육하려는 가부장적 욕망/불안 속에서 사춘기 ‘소녀성’ 혹은 10대 여성성은 ‘순결하지만 무지하며 충동과 유혹에 취약한 마음’으로 주조되며, ‘소녀’는 순진하지만 위험한 존재로, 때문에 항상적인 보호/감시가 필요한 존재로 부각된 것이다. 그러나 『신여성』을 지배한 이러한 가부장성 혹은 가부장이 가공한 ‘소녀(성)’는 이를 의심하고 이를 제기하며 ‘다른 소녀’를 주장하는 실재하는 소녀들에 의해 이미 언제나 휘절되는 것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박명하거나 불량한 소녀를 내파하면서 가부장성을 균열하는 ‘불화하는 소녀’들에 의해 ‘소녀성’이나 ‘소녀상’은 고정되지 않고 협상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 글은 이 불온한 소녀들의 근대, 혹은 소년의 근대가 누락하거나 폐제한 소녀들의 잊힌 근대를 복구하기 위한 시론적 탐색이다.

국문핵심어: 근대, 소녀, 소년, 여학생, 소녀성, 불량소녀, 『신여성』

## 1 ‘소년 대한’의 기획과 ‘소녀’

한국에서 신어(新語)로서의 ‘소년(少年)’이 등장한 것은 1900년대를 전후한 무렵으로 보인다. 소년이라는 어휘는 조선시대에도 존재했으나 현재와 같이 ‘청소년기’나 ‘미성년의 사내 아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어린/젊은 나이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범박하게 사용되었다. 서구의 번역어로서의 ‘소년’<sup>1</sup>, 혹은 근대가 창안한 특별한 세대적 표상으로서의 ‘소년’이 출현한 것은 근대계몽기 이후이며, 신어로서의 소년을 적극적으로 주조한 이들은 주지하듯이 새로운 조선을 기획하던 계몽 주체들이었다. 과거의 조선을 “정치도 늙고 관리도 늙고 인민도 늙은” 나라로 적발한 그들은 도래할 조선을 “전일의 부패한 습관을 소재하고 신선한 문화를 널리 퍼서 타락한 인민의 지기를 불너 씌우고 미약한 국가의 실력을 붓드려 썰치”<sup>2</sup>는 소년의 나라로 지시하며, 이 ‘소년 대한’을 건설할 주체로 소년을 호명한다.

사천여 년 늙은 나라를 소년의 한국으로 견인할 ‘소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흥미롭게도 이들 신대한의 국민으로 호출된 ‘소년’은 거둬들인 부정과 배제를 통해서 구성되고 있다. 예컨대 『대한매일신보』의 논설에 따르면 “팔힘이 이미 쇠한 자” “정신이 이미 모순한 자”는 소년일 수 없으며 “반드시 기력이 성대하고 정신이 강장”<sup>3</sup>한 자만이 소년에 합당한데, 이러한 정의에 따라 우선 소년과 식별되는 자는 노인/노년이다. 근대계몽기 이래 노인이란 ‘팔힘이 이미 쇠한 자’일 뿐 아니라 ‘정신 역시 닳아 없어진 자’, 즉 지나간 일에 집착하기에 “지혜하는 모습

---

1 한국에서 ‘boy’나 ‘boyhood’의 번역어로서 ‘소년’이 사전에 처음 등재된 것은 제임스 게일이 편찬한 한영자전으로 확인된다.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Underwood)가 1890년에 출간한 『韓英字典한영주전(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에는 boy에 해당하는 조선어로 ‘우희’ ‘사나희’가 제시되며, 1891년에 간행된 스콧의 『영한주전(An English-Korean Dictionary)』에도 ‘아희’라 지시되었으나, 1897년 영국인 선교사 제임스 게일(J. S. Gale)이 편찬한 『韓英字典한영주전(A Korean-English Dictionary)』에는 ‘boyhood’ ‘youth’의 번역어로 새롭게 ‘소년(少年)’을 사용하고 있다. 황호덕·이상현 편,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영인편』 I-V, 박문사, 2012 참조.

2 「소년의 한국」, 『대한매일신보』, 1910.7.1.

3 「소년동지회에 고하는 말」, 『대한매일신보』, 1908.8.7.

이 생기며 무암이 지테흐는고로 슈구홀 생각만 잇”<sup>4</sup>는 자로 적시되었다.

이렇듯 육체와 정신이 노인과 분별되는 자로 표상된 소년은 다시 소년답지 못한 소년을 축출하면서 거듭 획정된다. “년치는 쇼년이로되 그 뇌슈가 이미 썩고 그 기운이 이미 쇠”한 자는 노년과 다를 바 없으며, “쇼년 아닌 쇼년” “방탕한 쇼년”을 배제한 “시쇼년”<sup>5</sup>만이 소년에 부합한 자로 승인된 것이다. 이러한 새 소년이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 역시 제시되는데, 그것은 “천자문이나 漢唐 古詩”같은 시대에 뒤진 학문이 아니라 지리, 역사, 물리, 화학, 법률, 경제, 문학과 같은 신학문을 배우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근대 지식은 ‘학교’를 통해서만 습득 가능한 것으로 계몽되었다.<sup>6</sup> 말하자면 소년 대한의 기획자들이 구상한 새 소년이란 “제나라 제시대”에 대한 책임, 곧 신대환을 실현할 “기운의 쏘쏘함”과 “마음의 쏘쏘함”, “몸의 쏘쏘함”을 보유한 ‘학생’이며, 이 “소년다운 소년”<sup>7</sup>의 발명에 진력한 기원적 매체는 알려졌듯이 최남선이 창간한 『소년』이다.

‘소년을 위한 잡지’<sup>8</sup>를 최초로 표방한 『소년』에는 “소년한반도의 명예를 쏘세에 선양”<sup>9</sup>할 “쾌소년”들이 구체적으로 재현되는데, 우선 그들 대부분은 10대 안팎의 학+생으로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갑동이와 을남이의 상종」에 나오는 두 소년은 대성학교 생도로 9세의 을남이는 초등과에 15세의 갑동이는 중등과에 재학중이며, 「쾌소년세계주유시보」의 주인공 최건일도 양영(養英)학교 보통과를

- 
- 4 「(미국 공립신보 론설을 등지흠이라) 청년동포의계경고흠이라」, 『대한매일신보』, 1907.8.24.
  - 5 「소년동지회에 고흐는 말」, 『대한매일신보』, 1908.8.7.
  - 6 이동초, 「소년국민의 양성」, 『태극학보』 제16호, 1907.12.24. 이 글에서 필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학령기 아동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국민교육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전국에 학교를 설립할 것을 주장한다.
  - 7 『소년』 제2년 제10권, 1909.11.1. 인용 부분은 잡지의 표지에 서문 성격으로 실린 내용이다.
  - 8 『소년』보다 앞서 발행된 『소년한반도』(1906.11~1907.4)를 ‘대한제국 최초의 청소년 잡지’로 평가하기도 하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년한반도』는 특정하게 소년 독자를 겨냥한 매체는 아니며, 이 잡지에서 ‘소년’은 근대국가로 ‘새롭게 성장하거나/성장해야 할’ 조선, 즉 도래할 대한을 지시하는 수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손성준, 「대한제국기 잡지의 정치성과 애국운동의 접변-『소년한반도』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1권 2호, 한국근대문학회, 2020, 203-232쪽 참조.) 한편 『소년』 창간호 「編輯室通寄」에서 최남선은 오래 “經綸하야오던 少年을 爲하난 雜誌”를 발행하게 되었다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
  - 9 「쾌소년세계주유시보」, 『소년』 제1년 제1권, 1908.11, 72쪽.

것 졸업하고 세계여행에 나선 15세 소년으로 설정된다. 이들이 학습하는 지식은 예의 서구발 학문인데, 가령 영어로 인사를 건네는 갑동이와 을남이에게 전수하는 것은 생존 “경쟁”이 치열한 “생물계”의 이치이며,<sup>10</sup> 봉길이가 공부하는 것은 ‘지리학’이고,<sup>11</sup> 학교에서 배운 새로운 지식에 고무된 최건일은 “학교강당에서 圖繪로만 見하고 講語로 聞하든 우리世界의 實제를 時察”<sup>12</sup>하기 위해 직접 세계주유의 길에 오르기도 한다.

주목할 점은 이처럼 근대 지식을 익혀 부로(父老)와 달리 모험과 경난(經難)을 두려워하지 않는 ‘쾌소년’들이 모두 ‘남아(男兒)’로 부조되었다는 사실이다. 『소년』 이전에도 소년 남녀의 성 역할을 달리 인식하거나 소년의 성별을 남성으로 상상하는 언설은 종종 발견된다. 가령 소년의 교육을 독려하는 논설에서 남아는 “대장부의 직책을 담당”할 자로 “어린 녀즈”는 “집안에 주모될 사름”<sup>13</sup>으로 분별되는가 하면, “한국에 부강”을 기약할 청년/소년 인제는 “이천만 국민 가운데 녀즈와 로약을 제”<sup>14</sup>한 오백만 명으로 산출되기도 했다. 이렇듯 ‘소년’이 성별적 표상으로 구상되는 정황은 『소년』에 오면 더욱 뚜렷해진다. 신대한의 주인으로 『소년』이 호명한 “우리輩”<sup>15</sup>, 곧 쾌소년의 무리란 “항상 둘이 못고 대답하고 이르고 다투는 사이”로 서로 “사랑”하고 “사모”<sup>16</sup>하는 갑동이와 을남이에서 간취되듯 소년 남자들의 동맹이며, 이들이 모방할 위인 역시 나폴레옹, 피터대제, 가리발디나 극지를 탐험한 피어리, 쿡 등 예외 없이 남성 영웅들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소년』이 창안한 쾌소년이란 다름 아닌 ‘쾌남아’이며, 때문에 한 논자의 지적처럼 최남선을 비롯한 남성 계몽주체들이 주도한 ‘소년’의 기획에서 ‘소년 여자’ 혹은 ‘소녀’는 기실 “텅 빈 표상”으로 남게 된다.<sup>17</sup> 이 글은 이 공백의 기호로 존재

10 「갑동이와 을남이의 상중(-)」, 『소년』 제1년 제1권, 12-23쪽.

11 「봉길이의지리공부」, 『소년』 제1년 제1권, 65-68쪽.

12 「쾌소년세계주유시보」, 『소년』 제1년 제1권, 72쪽.

13 「소년은 국가의 장진」, 『제국신문』, 1902.3.8.

14 「(미국 공립신보 론설을 등지함) 청년동포의게 경고함이라」, 『대한매일신보』, 1907.8.24.

15 「少年時言」, 『소년』 제1년 제1권, 6쪽.

16 「갑동이와 을남이의 상중(-)」, 『소년』 제1년 제1권, 13쪽.

17 한지희, 「최남선의 ‘소년’의 기획과 ‘소녀’의 잉여」, 『젠더와문화』 제6권 2호,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2013, 125-148쪽.

한 ‘소녀’, 혹은 노인이나 소년답지 못한 소년과 마찬가지로 “자유대한의 싹힌바 소년”<sup>18</sup>은 아닌 자, 낡은 조선을 때리고 부수고 무너뜨릴 “담 크고 순정한”<sup>19</sup> 소년은 아닌 자, 하여 ‘소년의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아닌 자로 주조된 ‘소녀’의 기원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조선에서 신어로서의 ‘소녀’가 등장한 것은 ‘소년’의 출현보다 늦은 1910년대 무렵으로 보인다.<sup>20</sup> ‘boy’ 혹은 ‘boyhood’의 번역어로서 근대적 의미의 ‘소녀’가 처음 등재된 제임스 게일(J. S. Gale)의 『영한주언』(1897)에도 ‘소녀(少女)’라는 어휘는 발견되지 않으며, 다만 전대에 사용되던 여성이 자기를 낮추어 지시하는 용어로 ‘소녀(小女)’를 소개하고 있다.<sup>21</sup> 잡지 『소년』(1908)에도 어리거나 젊은 여자를 지칭했던 ‘소저(小姐)’가 간혹 쓰일 뿐 ‘소녀’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1910년대에 들면 상황은 달라지는데, ‘소녀’를 표제로 한 신문기사가 다수 확인될 뿐 아니라 김명순의 소설 「의심의 소녀」(1917)에서 보듯 ‘소녀’라는 용어를 사용한 문학 작품 역시 등장하고 있다.<sup>22</sup>

18 「소년대한」, 『소년』 제1년 제2권, 1908.12, 3쪽.

19 「해에게서 소년에게」, 『소년』 제1년 제1권, 4쪽.

20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880년부터 1910년까지 신문·잡지에 ‘소녀(少女)’라는 어휘가 등장한 경우는 총 7건이며, 그 가운데 ‘少女’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4건이었다. 또한 4건 중 3건은 1910년에 발행된 신문에서 확인되며, 그중 「찰살소녀」(1910.3.29), 「소녀의 국가사상」(1910.8.9.)은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발간한 『신한국보』에, 「소녀의 分娩」(1910.7.31.)이 『황성신문』에 게재된 것이다. 1910년 이전의 신문에 ‘少女’라는 어휘가 발견되는 경우는 『대한매일신보』에 수록된 「少女가 暗殺將官」(1906.9.15.)이 유일했으며, ‘소녀’와 관련한 내용은 모두 단신 기사였다. 같은 시기(1880~1910) ‘소년’이라는 어휘가 등장하는 신문·잡지의 기사 건수는 총 405건이다. 한편 1911년부터 1919년까지 ‘소녀’로 검색되는 기사의 수는 총 151건으로 확인되는데, 1910년대 들어 ‘소녀’라는 용어가 통용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 판단된다.

21 제임스 게일(J. S. Gale), 『韓英字典한영주언(A Korean-English Dictionary)』,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영인편』 V. 한편 언더우드의 『韓英字典한영주언(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1890)에 기록된 ‘girl’의 번역어는 ‘계집오희’ ‘처녀’이며, 스콧의 『영한주언(An English-Corean Dictionary)』(1891)에도 ‘새악씨’ ‘처녀’로 기재되었다.

22 1910년대에는 작품명이나 혹은 장르명에 ‘소녀’가 들어간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데, 가령 잡지 『여자계』 3호(1918. 9)에는 ‘소녀가극’이라는 장르명으로 「初春의 悲哀」(天園 作)

그렇다면 1910년대 미디어가 부조했던 ‘소녀’는 어떤 이들인가. 대개 사건 기사의 주인공인 그들은 조혼이나 축첩의 폐습에 희생되거나 창기로 팔리거나 성을 착취당한 가련한 ‘박명소녀’가 대부분이다. 담대하고 진취적인 쾌소년, 용소년이 아닌, 외려 낡은 조선과 대결중인 소년 남자의 비애와 동정을 촉발하는 이들 박명소녀는 1910년대 신문·잡지가 가장 흔히 전시한 소녀상이기도 했다. 때문에 전근대적 악습의 수동적 피해자로 소녀를 주로 부각했던 1910년대 대중 미디어에서 근대를 실천하는 이른바 ‘쾌소년’을 만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소녀’는 연령과 성별이 기입된 신어일 뿐 ‘소년’과 같은 근대적 가치를 보유한 어의로 통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sup>23</sup>

박명소녀가 주류로 배치된 1910년대와는 달리 1920년대 초부터 신문·잡지에 새롭게 출현한 이들은 ‘향학소녀’이다. 매매되고 유린당한 가련 소녀도 여전히 등장하지만, 그보다 적극적으로 서사화되는 이들의 다수는 신교육을 열망하는 소녀들이었다. 때문에 소녀 밀매만큼이나 자주 등장한 기사는 “공부차로 도망”<sup>24</sup>한 가출 소녀들에 관한 것인데, 여자의 교육에 미온적인 부모에 반발해

가 실렸으며, 1918년 『매일신보』에서 모집한 ‘매신문단’에 2등으로 당선한 시 작품도 「소녀」(김복진 作)였다.

- 23** 1910년대 신문에 ‘소녀’로 지시되는 여성들의 나이는 대부분 10대였다. 예컨대 가난한 부모의 빚 때문에 첩이 될 위기에 처하자 음독자살한 ‘진길수’, 혼인을 빙자해 접근한 남자에 의해 색주가에 팔릴 뻔했던 ‘홍원통’ 등은 16살이며, 부부의 정을 모르는 어린 본부를 살해한 김분악은 18세이고, 놀고먹는 남편을 경찰서에 고발하고 이혼을 요구한 “담대한 소녀”의 나이 역시 ‘17,8세’로 제시된다. (「빈한양친의 혈루 박명소녀의 원혼」, 『매일신보』, 1914.8.12.; 「소녀의 소원」, 『매일신보』, 1914.8.12.; 「18세 소녀 본부를 교살」, 『매일신보』, 1917.1.17.; 「담대한 소녀 놀고먹는 서방과는 이혼」, 『매일신보』, 1914.8.27.) 이 외에도 기사에서 소녀의 나이가 언급된 경우는 모두 10대였는데, 1910년대 매체가 이들을 ‘소녀’로 지시한 근거는 교육이나 결혼의 여부와는 무관한 ‘연령’인 것으로 간주된다.
- 24** 「15세 소녀가 공부차로 도망」, 『동아일보』, 1924.5.13. 이 기사의 주인공인 이창득은 딸까지 학교에 보낼 수 없다는 아버지에 반발하며 공부를 하겠다고 무작정 가출했다 경찰서에 연행되는데, 창득의 사연을 들은 경찰서장은 그녀의 굳은 의지에 감동해 자신이 학비를 부담해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하자 결국 아버지가 마음을 바꿔 창득을 보통학교에 입학시킨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창득이 개성의 호수돈 학교에 입학해 고학으로 공부를 계속할 생각이라 전하는데, 1920년대 초반 신문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기사들이 빈번히 발견된다.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무작정 집을 나선 것이 이들의 대동소이한 출분 내력이었다.<sup>25</sup> 한편 향학소녀 혹은 여학생은 1920년대 애화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발탁되기도 하는데, 『동아일보』에 연재된 「소녀애화-我女の 흠혈귀」는 기생이 된 고모와 언니의 지원으로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인 박형순이 기생이 될 것을 강권하는 아버지와 가족들로 인해 끝내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을 전하며, 아버지인 박희도의 행위를 “인권을 유린하는 악행”으로 고발하고 독자들에게 “친권만능의 그릇된 생각”<sup>26</sup>을 타파하라 촉구하기도 한다. 특기할 점은 애화의 주인공인 박형순이 무도한 가부장에 순순히 투항하는 취약한 존재로만 재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출을 결행하며 부로(父老)와 대결하는 향학소녀의 계보인 박형순은 편지와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의 횡포를 세상에 고지하고 동정을 호소하기도 한다. 1910년대 박명소녀가 주로 재래의 악습이나 부적절한 관행의 일방적 피해자였다면, 1920년대 초 향학소녀는 봉건적 구습에 반발하고 근대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행위자로 부각된 것이다.

배움을 열망하는 10대 여성들이 이렇듯 1920년대 신문·잡지에 새롭게 호출되고 소녀 관련 기사의 주류로 부상한 것은 3·1운동 이후 고조된 여성 교육의 열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듯이 3·1운동은 여성이 “민족의 유

---

25 이 밖에도 근대적 교육이나 문물과 접촉하려는 신중 소녀들에 관한 기사가 1920년대 초부터 다양하게 게재되는데, 가령 여자교육기관이 없는 제주도 한 촌락의 소녀들이 마을의 학교 교사를 설득해 여자야학회를 개설하고 수학 중이라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전북에 있는 한 여자학우회에서는 ‘소녀의 날’을 제정하고 ‘소녀가’를 지어 제창했다는 기사도 발견된다. 이 밖에도 소녀여자야학회에서 개최한 학예회, 교회에서 주최하는 소녀가극회, 소년소녀 현상토론회 등 소녀들의 활동을 전하는 기사들이 종종 배치되었다. 「소녀여자학예회」, 『동아일보』, 1921.12.11; 「소녀가극회 성황」, 『동아일보』, 1922.8.4; 「10월1일 소녀의 날」, 『동아일보』, 1923.10.9.; 「소년소녀 현상토론」, 『조선일보』, 1923.11.6.; 「월정소녀향학열」, 『조선일보』, 1923.12.28. 참조.

26 「소녀애화(七) 我女の 흠혈귀」, 『동아일보』, 1921.10.8. 「소녀애화 我女の 흠혈귀」는 1921년 10월 2일 1회를 시작으로 총 7회 연재되었다. 같은 해 『조선일보』에 연재된 「간월복원 소녀의 애화」(1921.7.8.~7.11)도 이화학당 보통과 2년에 재학 중인 11세 소녀에 관한 서사인데, 가난하고 무식한 부모에 의해 9살에 요릿집에 팔린 소녀를 정동교회 목사 김중우와 이화학당 선생 김활란이 교인들과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기생이 될 뻔한 아이를 구해내고 이화학당에 입학시켰다는 내용이다.



대의식과 인간적인 자각”을 하게 된 계기였을 뿐 아니라 ‘여학생’의 존재를 부각하고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건이기도 했다.<sup>27</sup> 아울러 3·1운동 이후 전개된 문화운동 역시 민족의 실력양성을 위한 방법론으로 신교육의 보급을 적극 추진하면서 대중의 향학열을 추동했는데,<sup>28</sup> 이러한 계기들이 1920년대 여성 교육에도 변화를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대정구년”, 즉 1920년에 이르러 “일반 여자의 향학열이 늘어서 각 학교에서는 입학하려고 오는 학생을 다 받지 못하게 되었” 다거나, “넋날 녀학생의 보통과 졸업을 만족하던 것이 오늘에 잇서서는 고등보통 학교도 만족치를 아니하고 더욱더욱 상급학교로 가려고”<sup>29</sup> 하면서 “녀자교육이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하는 문데도 인제는 한 목은 이야기가 되었”<sup>30</sup>다는 당시 동덕여학교 교장 조동식의 언급에서 이는 가늠된다.

1920년대 ‘교육의 학교화’<sup>31</sup>가 이렇듯 실제로 현상하면서 가령 이광수는

- 
- 27** 3·1운동 당시 검거자 수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는 특정 직종에 국한되지 않았으나 여성의 경우는 검거자 471명 중 218명이 교사와 학생이었으며, 또한 25세 이하 여성이 총 311명이었고 그중 20세 미만의 여성이 197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정요섭, 「3·1운동과 여성」, 『한국근대여성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87, 42-58쪽.
- 28** 박찬승, 『민족주의 시대-일제하의 한국 민족주의』, 경인문화사, 2007, 103-117쪽 참조.
- 29** 조동식, 「십년전여학생과 지금여학생」, 『신여성』 제3권 1호, 1925.1, 15쪽. 통계에 따르면 1920년 보통학교 여학생 수는 1919년보다 약 40%, 고등보통학교 여학생 수는 50% 이상 증가했다. 조동식이 글을 쓴 1925년 당시 여학생 수는 1919년보다 보통학교 학생 수가 6배 이상, 고등보통학교 여학생 수는 약 5배 증가했다.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278쪽, 283쪽 참조.
- 30** 조동식, 「여자교육의 昔今觀」, 『신여성』 제4권 4호, 1926.4, 9쪽.
- 31** 한일합방 이후 1910년대까지는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했으나, 1920년대 들어 학교교육은 일반 민중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경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홍일표, 「주체형성의 장의 변화: 가족에서 학교로」,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1997, 277-313쪽 참조. 참고로 일제가 발표(發布)한 제1차 조선교육령(1911-1921)에는 보통학교 입학 연령 8세 이상, 수업 연한은 4년이었으나, 제2차 조선교육령(1922-1937)부터 보통학교 입학연령은 6세 이상, 수업 연한은 6년(5년 또는 4년으로 단축 가능)으로 조정되며, 중등교육의 수업 연한 또한 고등보통학교 5년, 여자고등보통학교도 5년(4년 또는 3년으로 단축 가능)으로 연장되었다. 김부자, 조경희·김우자 역, 『학교 밖의 조선 여성들』, 일조각, 2009, 76-77쪽 참조.

“12,3세 이상 20세 내외”의 “고등보통학교와 보통학교에 다니는 수십만의” 남녀를 ‘소년’<sup>32</sup>의 범주로 설정하며, 이들 소년 남녀를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파산의 참경에 있는” 조선을 구할 진정한 소년으로 발탁하기도 했다.<sup>33</sup> 말하자면 이광수 혹은 민족 계몽의 전위들에게 “조선의 운명의 지침을 돌릴” 만한 소년의 정당한/정상적 조건은 “공부하기를 동맹”<sup>34</sup>하는 ‘학생’으로 상상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감안하면 1920년대 당시 여학생 수는 비록 전체 여성 인구의 1%가 되지 않았으나 ‘여학생’은 소년 여자를 대표하며,<sup>35</sup> 집단적으로 가시화된 이들 여학생이 ‘소녀’라는 표상을 창안하고 소년의 상

32 근대적 학제가 정착하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서 ‘청년’과 분별되는 ‘소년(기)’의 연령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주지하듯이 1900년대를 전후해 신어로 부상한 소년과 청년은 호환가능한 용어였으나, 1910년대를 전후해 소년은 10대를, 청년은 20대를 지시하는 개념으로 점차 분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년이나 청년과 구별되는 ‘소년’의 연령은 여전히 합의된 기준이 부재했는데, 가령 1920년대 초반 결성된 소년 단체들의 가입 자격은 일반적으로 ‘12세에서 18세, 또는 20세까지’로 연령이 제한되었으며, 천도교소년회 가입 연령은 만 7세부터 16세였으나 천도교 소년운동을 이끌었던 방정환이나 김기전은 18,9세까지를 소년(기)로 언급했는가 하면, 1920년대 후반 조선소년연합회는 소년회원의 연령을 만 18세까지로, 좌익적 성향의 조선소년총동맹도 12세 이상 18세까지로 제한했다. 이같이 소년의 연령은 유동적이었으나 ‘소년(기)’은 대개 10대로 인식된 것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이기훈, 「1920년대 ‘어린이’의 형성과 동화」, 『역사문제연구』 제8호, 역사문제연구소, 2002, 9-44쪽; 이기훈, 「청년, 근대의 표상-1920년대 ‘청년’ 담론의 형성과 변화」, 『문화과학』 제37호, 문화과학사, 2004, 207-227쪽; 장석홍, 「근대 소년운동의 독립운동사적 위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5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253-276쪽; 박길수, 「천도교소년회 초기 활동 연구-『천도교회월보』를 중심으로」, 『방정환연구』 제5호, 방정환연구소, 2021, 67-108쪽 참조.

33 이광수, 「소년에게」, 『이광수전집』 제17권, 삼중당, 1962, 237-240쪽. 「소년에게」는 1921년 11월부터 1922년 3월까지 『개벽』에 연재되었다.

34 위의 글, 244쪽.

35 열악한 여자교육의 상황을 지적한 김기전에 따르면 1920년대 초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 여학생 수는 5만 명 내외로 860만 여성 인구 중에서 0.6% 정도이며, 그중 고등보통학교에 재학한 여학생은 천여 명에 불과하다고 개탄했으나, 1920년대가 되면 담론으로 존재했던 여학생들을 실제로 거리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김기전, 「조선의 절뚝바리 교육」, 『신여성』 제2권 3호, 1924.4, 3쪽; 연구공간 슈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 『신여성』, 한겨레신문사, 2005, 13쪽 참조.

대어로서 ‘소녀’가 확산하는데 결정적 촉매가 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소년소녀 현상토론’ ‘소년소녀 현상규정’ ‘소년소녀란’ 등과 같은 기사의 표제에서 간취되듯이 남녀를 아우르는 무성적 용어로 등장했던 ‘소년’은 여학생이 대거 등장한 1920년대 들어 점차 성별적 어휘로 굳어지며 소년과 대칭적 의미의 ‘소녀’라는 신어 역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sup>36</sup>

한편 소년다운 소년과 마찬가지로 소녀다운 소녀를 충족하는 조건으로 교육이 강조되었으나 소녀 교육의 목표는 소년과는 변별되는 것이었다. 한 논자가 지적했듯이 1920년대 소년의 교육을 촉진한 명분이 ‘실력양성’이었다면 소녀에게 할당된 명분은 ‘현모양처’였는데.<sup>37</sup> 이는 가부장성에 지지된 식민권력이나 식민지 민족주의 모두 다르지 않았다. 조선교육령을 통해 식민정부가 일관되게 지정한 여성 교육의 목표가 ‘부덕(婦德)의 함양’이었다면,<sup>38</sup> 민족주의 계몽주체들이 요구한 여학생 교육의 목표 역시 “평화한 가정의 현숙한 안해”<sup>39</sup>가 되고 “조흔 어머니가 되어 조흔 아희를 길러내는” “모성중심의 교육”<sup>40</sup>이었다. 따라서 가정 “조화”를 책임질 미래의 현모양처로 배정된 소녀에는 국가/민족 “형성”<sup>41</sup>의 주체로 성장할 소년과는 다른 젠더정체성이 부여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같은 성차적 표상으로서의 ‘소녀’나 ‘소녀성’을 발명/훈육한 기관은 학교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시 만드는”<sup>42</sup> 학교 밖의 학교로 자부했던 근대 미디어들, 특히 여성잡지이기도 했다.

메이지유신을 단행하고 교육제도를 근대적으로 전환하면서 여성교육을 확대했던 일본의 경우 1900년대 초부터 여학생을 독자로 겨냥한 소녀잡지가 속속

36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 1921-1930년까지 ‘소녀’로 검색되는 기사 건수는 총 2705건으로 1911-1920까지 183건보다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

37 김부자, 앞의 책, 247쪽.

38 조선총독부는 제1차 조선교육령(1911) 이래로 “부덕을 키우며 국민이 될 만한 성격”을 도야하는 것을 여자고등보통학교의 목표로 설정했다. 김부자, 앞의 책, 117쪽 참조.

39 조춘광, 「여학교당국에-인간애와 교육」, 『신여성』, 제2권 11월호, 1924.11, 64쪽.

40 이광수, 「모성중심의 여자교육」, 『신여성』, 제3권 1호, 1925.1, 19쪽.

41 조춘광, 앞의 글, 64쪽.

42 방신영, 「신여자를 讀하고」, 『신여자』 2호, 1920.4, 32쪽. 필자는 이 글에서 “사람을 다시 만드는 기관은 교육이오 교육하는 기관중에 유력한 것은 잡지”라고 설파한다.

발행되면서, 이들 미디어를 매개로 소녀에 관한 각종 담론이나 소녀문화가 형성되기도 했으나,<sup>43</sup> 조선의 경우는 소녀잡지가 희소했을 뿐 아니라 발행되더라도 지속되지 못했고 발간이 예고되었으나 실제 창간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sup>44</sup> 이처럼 소녀잡지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식민지 조선에서 ‘소녀’라는 표상을 구축한 유력한 기원으로 재독할 수 있는 매체가 『신여성』이다. 익히 알듯이 천도교에서 설립한 개벽사가 조선 가정의 개조와 부녀의 계몽을 위해 창간했던 『부인』(1922)을 폐간하고 “현대 여학생을 표준하여”<sup>45</sup> 1923년 새로 발간한 잡지가 『신여성』이다. 1920년대 『신여성』이 독자로 호출하거나 주목했던 ‘여학

43 일본의 경우 1902년 『소녀계』를 시작으로 『여학세계』(1906), 『일본의 소녀』(1906), 『소녀세계』(1907), 『소녀지우』(1908), 『소녀』(1910), 『소녀화보』(1912), 『소녀구락부』(1923) 등이 연이어 창간되었는데, 잡지들의 주요 독자는 ‘여학생’들이며, 이들을 겨냥한 잡지에는 일종의 시그니처처럼 ‘소녀’라는 단어가 포함되었다고 한다. 소녀잡지는 유년의 여아(女兒)나 성년의 여성이 아닌 미성년의 소녀를 독자로 호명하고, 소년과 구별되는 젠더적·문화적 기호로서의 ‘소녀’를 발명하는 데 유력한 역할을 담당한다. 최은경, 「근대일본 소녀소설에서 보는 ‘소녀’ 표상」, 『일본근대학연구』 제42집, 한국일본근대학회, 2013, 177-183쪽.

44 조선에서 ‘소녀’를 독자로 특정해 실제 발행된 잡지로 확인된 것은 『소녀계』가 유일하다. 『소녀계』는 『소년계』(1926)를 발행한 소년계사에서 1927년 6월에 창간한 잡지로, 발간을 알리는 신문기사에는 집필동인이 ‘장정심, 모윤숙, 이정호, 김려순, 장정의, 이정옥 등’이라 밝히고 있다. (『소녀계 발간』, 『조선일보』, 1927.6.2) 한편 1928년 11월3일자 『조선일보』에는 잡지 『소년계』와 『소녀계』의 휴간을 알리는 기사가 실렸는데 이후로는 『소녀계』에 관한 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소년소녀문예개평 3』, 『조선일보』, 1928.11.3) 아울러 1928년 1월에는 ‘소년문학을 연구하는 꽃별회 회원들과 기타 명여류들이 망라하여 소녀시대사를 창립하고, 순전히 소녀에 관한 잡지 『소녀시대』를 창간하기 위해 원고를 모집 중’이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으나 실제 창간 기사는 발견되지 않는다. (『소녀시대사 광희정에 창립』, 『조선일보』, 1928.1.21) 김미지에 따르면 1920년대 말부터 신문지면에 『장미』, 『로-쓰』, 『봉선화』 등의 소녀잡지 발행 준비를 알리는 기사가 보도되는데 발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김미지, 「식민지 조선의 ‘소녀’ 독자와 근대·대중·문학의 동시대성」, 『대중서사연구』, 대중서사학회, 제20권 2호, 2014, 22쪽.

45 현철, 「알아두어 필요할 연극이야기」, 『신여성』 제2권 6호, 95쪽. 이 글에서 현철은 자신이 개벽사 사원으로 있을 때 적극 주장해 『부인』을 창간했으며, 자신의 퇴사 후 방정환이 ‘신여성’으로 제호를 바꾸고 대상 독자 역시 여학생을 표준으로 하면서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고 술회한다.

생'이 주로 여자고등보통학교에 다니는 10대 중후반이나 20세 내외의 여성이라면, 이는 개벽사에서 발행한 또 다른 잡지 『어린이』가 표준했던 아동으로서의 소녀와는 분별되는 것이기도 하다.<sup>46</sup> 『어린이』는 '소녀란'을 배치하고 '소녀소설', '소녀애화'와 같은 각종 소녀 독물(讀物)을 게재하면서 소년과 다른 소녀상을 조형한 매체였으나, 『어린이』가 부조한 소녀나 소년은 대개 10대 전후 혹은 10대 초반의 아동이었다. 따라서 어린이/아동도 어른/청년도 아닌 10대 소녀들을 주요 독자로 발탁한 『신여성』은 『어린이』가 호명한 소녀와는 또 다른 소녀들, 이른바 "춘정발생기"<sup>47</sup> 곧 사춘기 소녀들에 관한 각종 지식을 생산하면서 그들에게 합당한 규범을 교육하고 소녀의 (비)정상성을 식별해간 조선판 여학생 잡지의 기원으로 독해 가능할지 모른다.

주지하듯이 기왕의 연구는 신지식층 여성에 관한 담론장으로 『신여성』을 주로 정독해 왔을 뿐 학생 신분의 청소년 여성성을 구축한 시원적 장으로서 『신여성』에는 별반 주목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는 비단 『신여성』 연구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 '소년'이나 '청년'에 주목한 반면 '소녀'나 '청년 여자'에 대한 관심은 부재하거나 부족했던 근대 문학·문화 연구의 성별주의와, 아울러 미성년의 소녀나 노년 여성보다는 청년/성년 여성에 관심을 집중해 온 여성 연구의 의도치 않은 연령주의 역시 원인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최근 '소녀'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성찰에 힘입은 것이라 판단되는데, 그러나 근대 문학·문화의 장에서 '부재했던 소녀', '아동으로서의 소녀', '학교 밖의 소녀', '독자로서의 소녀' 등을 천착한 최근의 연구에서도 '소녀'의 탄생을 결정적으로 추동한 '여학생 소녀'에 주목한 연구는 여전히 협소해 보인다.<sup>48</sup>

46 『신여성』이 주요 독자로 설정한 '여학생'은 대개 10대 중후반에서 20세 내외의 연령으로 짐작된다. 『신여성』이 게재한 여학생 관련 서사물에 등장하는 여학생의 연령은 대부분 15세 이상 20세 미만이었는데, 이에 비해 『어린이』에 수록된 소녀서사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10세 내외 혹은 10대 초반의 소녀들이었다. 김혜곤, 「『어린이』(1923~1935) 소녀서사에 나타난 소녀 재현 양상과 젠더 인식에 관한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석사논문, 2019, 34-62쪽 참조.

47 김승식, 「연령상으로 본 여자의 심리」, 『신여성』 제4권 9호, 1926.9, 19쪽.

48 이와 관련한 주요 연구로는 한지희, 박숙자, 최배은, 김혜곤, 김주현, 김미지, 엄미옥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전술한 바 있듯이 잡지 『소년』을 주로 독해한 한지희는 남성 계몽주체

이마다 에리카 등에 따르면 기실 ‘소녀’란 학교교육제도의 편제로 탄생할 수 있었던 현상이다. 다시 말해 여성의 국민화를 기획하고 여성의 중등교육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취학기에 있으며 출산 가능한 신체를 가지면서도 결혼까지 유예받은 기간’인 ‘소녀기’의 형성이 가능했고, 이 기간 동안 학교에 소속된 소녀들은 공교육이나 각종 대중미디어를 통해 부과되는 젠더 규범을 내면화하는 한편, 소녀잡지 등을 매개로 소녀문화를 창안하면서 그들만의 연대감을 공유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마다에리카는 ‘여학교를 다니며 소녀잡지를 읽는 여성’으로 소녀를 규정하기도 한다.<sup>49</sup>

가 주도한 ‘소년’의 기획에 ‘소녀’는 잉여로 존재했으며 때문에 소년과는 다른 소녀의 경험 이 제대로 담론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근대적 주체-타자의 형성과정을 ‘소녀’라는 기호를 통해서 살펴본 박숙자는 ‘순진성’과 ‘감상성(낭만성)’이 결합된 ‘소녀’라는 표상이 성별주의와 연령주의에 지지된 남성주체가 구성한 타자성이자 판타지임을 밝힌 바 있다. (박숙자, 「근대적 주체와 타자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어문학』 제97집, 한국어문학회, 2007, 267-289쪽.) 한편 최배은·김혜곤 등은 식민지 시기 주로 어린이/아동 관련 잡지에 수록된 ‘소녀소설’에 재현된 소녀상을 탐사한 바 있으며, (최배은, 「한국 근대 ‘소녀소설’의 ‘소녀’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53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4, 111-138쪽; 김혜곤, 앞의 글, 1-89쪽.) 아울러 김주현은 ‘소녀=여학생’이라는 인식 아래 간과되었던 ‘불우소녀’들에 주목하고 여공, 기생, 위안부 등을 전전했던 학교 밖 소녀들의 행로를 추적했다. (김주현, 「불우 소녀들의 가출과 월경」, 『여성문학연구』 제28호, 한국어성문학학회, 2012, 449-483쪽.) 한편 김미지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여학생/소녀들이 대중적인 일본어 작품이나 일본에서 수입된 소녀잡지의 열렬한 독자로 변신하면서 계몽주의·엄숙주의를 앞세운 남성 지식인의 엘리트주의 문화를 균열하는 지점을 분석했으며, (김미지, 앞의 글, 7-35쪽) 근대소설의 형성과정과 ‘여학생’의 접촉을 탐사한 엄미옥은 여학생을 둘러싼 담론과 근대소설에 나타난 여학생 표상을 조명했다. (엄미옥, 『여학생, 근대를 만나다-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여학생』, 역락, 2011) ‘소녀(상)’의 기원을 탐사한 이들의 연구는 의미 있는 성과이지만, 주로 소년의 ‘젠더’를 규명하는데 할애되거나, ‘소녀소설’이라는 특정 장르에 재현된 ‘아동’으로서의 소녀에 집중하거나, 일본발 소설과 소녀잡지에 한정해 소녀독자의 능동성을 읽어내거나, ‘소녀’보다 ‘신교육을 받은 여성’으로서 여학생 담론/표상을 주로 독해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간취되기도 한다. 이 글은 기존 연구의 성과를 참조하고 한계를 성찰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49 최은경, 앞의 글, 177-183쪽; 배묘정, 「제국주의와 소녀규범」, 『일본연구』 제51호,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19, 195-202쪽. 한편 이마다 에리카의 『소녀의 사회사』(2007) 등을 참조하면서 1950년대를 특수한 엘리트층이 아닌 대중적·실체적 범주로서의 여학생이 등장한 기원적 시기로 파악하고 예비 여성시민으로서 소녀의 탄생과 반공주의 서사의 접

여학생의 등장과 소녀잡지가 근대적 표상으로서의 ‘소녀’의 탄생과 긴밀히 접속한다는 이러한 논의들을 참조하면서, 이 글은 식민지 시기 최초로 10대 여학생 혹은 여성 청소년을 주요 독자로 상정하고 다수의 소녀 독자를 확보했던 잡지 『신여성』을 주로 독해하면서, 소년과 다른 젠더 규범이 소녀에게 부과되고 소년성과 구별되는 ‘소녀성’이 발명되며 모범적이거나 불량한 것으로 식별된 ‘소녀상’이 구축되는 기원적 상황을 탐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먼저 여학생 잡지로서의 『신여성』의 면모를 다시 살피고자 한다.

## 2 소녀 독자의 부상과 ‘여학생 잡지’ 『신여성』

현철이 술회한 바 있듯이 창간 당시 『신여성』이 겨냥한 주요 독자는 ‘현대 여학생’이었다. 물론 “고등보통학교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정도를 졸업”<sup>50</sup>한 20세 이상의 성인 여성이나 부인들 역시 독자로 호출했으나, 1920년대 당시 신교육을 수혜한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중등 이상의 교육을 완료한 여성 독자의 수는 극히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신여성』이 독자로 호명한 신여성은 당시 한 논자의 언급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신녀성이면 녀학생, 그러케되지 않을 것이지만” 조선의 경우는 “녀학생이면 신녀성이고 신녀성이면 녀학생”<sup>51</sup>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리라 짐작된다. ‘여학생 잡지’로서의 『신여성』은 1920년대(1923.9~1926.10)에 보다 뚜렷한데,<sup>52</sup> 이는 잡지의 기획을 통해서도

---

속을 조명한 김복순의 연구는 흥미롭지만, ‘소녀’라는 근대적 표상의 기원을 온전히 해명하지 않은 채 해방 이후 소녀(상)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지점이다. 김복순, 「소녀의 탄생과 반공주의 서사의 계보」, 『한국근대문학연구』 제9권 2호, 한국근대문학회, 2008, 203-234쪽.

50 소춘, 「요새의 조선신여자」, 『신여성』, 1923.11, 59쪽. 이 글에서 필자(김기전)는 고등보통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나 동등의 혹은 그 이상의 과정을 졸업한 여성을 ‘신여자’라 명명한다.

51 김경재, 「여학생여러분에게 고하노라」, 『신여성』 제4권 4호, 6쪽.

52 1920년대 『신여성』이 여학생 독자를 특히 겨냥했다는 것은 광고에서도 짐작된다. 『신여성』에는 개벽사에서 발간한 잡지 『어린이』 광고가 몇 차례 실리는데 편집진은 잡지의 구매자로 일관되게 여학생을 호명하고 있다. 광고 문구에는 “여학생 여러분,

확인된다. 1930년대 속간된 『신여성』(1931.1~1934.8)에는 전대에 비해 여학생 관련 기획이 줄어든 대신 “어린 아기의 보육·교육 기타 문제와 어머니로서 반듯이 알아야 할 상식과 지식”<sup>53</sup>을 제공하는 ‘어머니란’이 고정으로 등장하고, ‘부인독본’ ‘주부독본’ ‘산부독본’ 등 주부 대상 읽을거리나 ‘직업부인문제특집’과 같은 직업여성의 문제를 특화한 내용이 확대되었다.

1920년대 『신여성』이 여학생을 주요 독자로 겨냥한 이유는 무엇보다 여학생 수의 증가와 관련된 것이라 가늠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3·1운동 이후 여성들의 향학열이 고조되면서 보통학교뿐 아니라 그 이상의 ‘고등정도’<sup>54</sup>를 수학하려는 여학생의 수 역시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1920년대 중반이 되면 “자기의 장래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루밤비 배우라고 경향의 학생들이 별세가티 모혀들어” “어느 학교를 물론하고 응모수의 몇곱절 이상으로 지원자가 만”<sup>55</sup>은 입학난이 초래되었다. 개벽사가 “구가정 부인의 지식계발”<sup>56</sup>을 위해 발간했던 『부인』을 폐간하고 『신여성』을 새롭게 기획한 것은 이처럼 가시적 존재로 출현한 여학생들을 ‘외양보다는 머리가 새로운’ 조선의 신여자, 혹은 “새 시대의 속살림을 관장하고” “신가정의 녀주인공”<sup>57</sup>이 될 신여성으로 계발하려는 의도가 관철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몽적 목적 외에도 당시 근대문화, 특히 대중문화의 주요한 수용자로 등장하기 시작한 여학생들을 잡지의 독자로 견인하려는 현실적 고

당신이 반드시 책을 읽고 어린 동생께 보내주”(1권 2호, 1923.11)라거나, 방정환의 편집인 만큼 “특별히 여학생 여러분에게 아모 거릿김 업시 권고할 수 잇”(제2권 6호, 1924.9)다고 구독을 독려하기도 했다.

53 「어머니란 광고」, 『신여성』 제5권 11호, 1931.12, 46쪽.

54 일기자, 「全鮮여학생(고등정도)총수와 그 출생도별」, 『신여성』 제3권 1호, 24-25쪽. 이 글에는 전조선 각지에 있는 보통학교 이상 정도의 각 여학교 학생 수를 조사한 결과가 실렸는데, 1924년 12월 당시 전국 18개 여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 수는 2795명이며, 그중 경기도가 가장 많은 985명이었다. 한편 김경일이 ‘조선총독부통계연보’를 근거로 정리한 바에 따르면, 같은 시기(1924) 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생 비율은 1919년과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했다. 김경일, 앞의 책, 282-283쪽 참조.

55 일기자, 「여성평론-모집이나?도태냐?」, 『신여성』 제4권 4호, 15쪽.

56 현철, 앞의 글, 95쪽.

57 송도망인, 「개성 호스톤여고 교장에게」, 『신여성』 제2권 10호, 1924.11, 68쪽.



려 역시 개입했으리라 짐작되는데, 주지하듯이 노자영이 기획 출간한 『사랑의 불꽃』의 전례 없는 인기는 1920년대 초 형성되기 시작한 문화시장에서 여학생 독자/소비자의 존재를 선명히 각인한 상징적 사건이기도 했다.<sup>58</sup> 1920년대 최대의 베스트셀러였던 『사랑의 불꽃』의 유력한 독자로 여학생을 지목하는 언설은 빈번히 확인된다. 예컨대 여학생의 독서 경향을 관찰한 한 서점주인은 “노자영 군의 만든 「사랑의 불꽃」과 기타 연애소설가튼 것을 녀학생계에서 만히사보”<sup>59</sup>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는가 하면, 백철 역시 “조선에서는 저 비속한 「사랑의 불꽃」같은 것이 여학생의 중요한 독서물이 된 일이 있다”<sup>60</sup>고 술회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여학생들은 주로 『사랑의 불꽃』 류의センチ멘탈한 기분을 자극하는 “연애소설이나 감상문”<sup>61</sup>들, 가령 ‘강명화실기’나 ‘국지관(菊池寬, 기쿠치 간)’의 소설 같은 하품문예물을 애호하는 주요 독자로 간주되었는데,<sup>62</sup> 이같이 1920년대 독서

58 3·1운동 이후 15년간 조선문 독자의 독서경향 변화를 분석한 글에서 필자 정동규는 『사랑의 불꽃』은 “백발이 성성한 영감쟁이도 젖떨어진 소년소녀도 점잖은 신사도 기생 같보도 누구나 그 책을 안본 그때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며, “홍수같이 불어가는 저급독자는 ‘춘원’하면 몰라도 ‘춘성’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술회한 바 있다. (정동규, 「기미이후십오년간 조선문독자의 동태(하)」, 『동아일보』, 1933. 9.2) 『사랑의 불꽃』의 대대적 인기는 “순문예”와 다른 “달콤한 연문학(軟文學)”, 곧 대중문학과 이를 소비하는 대중독자의 본격적 출현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으로 간주된다. 권보드래 역시 『사랑의 불꽃』이 선풍적으로 유행한 1920년대 초반을 “‘대중’이 저널리즘과 소설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시기로 파악하는데, 그에 따르면 『사랑의 불꽃』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는 1923년에 간행된 것이지만 1922년에 발행되었다는 증언들 역시 있다고 한다. 권보드래, 「연애의 형성과 독서」, 『역사문제연구』 제7호, 역사문제연구소, 2001, 101-130쪽.

59 신길구, 「여학생 각인각관-서점에서 본 여학생」, 『신여성』 제4권 4호, 41쪽.

60 백철, 「현대여학생과 문학」, 『신여성』 제7권 10호, 1933.10, 36쪽.

61 신식, 「가을과 여자의 독서-특별히 여학생 여러분께」, 『신여성』 제4권 10호, 1926.10, 6쪽.

62 가령 박달성은 ‘연애소설’이나 ‘서정시’에 탐닉하는 여학생들의 독서 경향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경의선 차 안에서 본 ‘강명화실기’를 읽고 있던 여학교 학생들을 언급한 바 있으며(박달성, 「남녀학생의 연병과 문질」, 『신여성』 제2권7호, 1924.7, 55쪽), 이현구는 1930년대 여학생들의 소설 독서가 “세계적 명작의 탐독은 적”고 “국지관 등 소설 몇 권을 읽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이현구, 「현대여학생과 독서」, 『신여성』 제7권 10호, 31쪽)

시장의 새로운 소비자로 여학생 소녀들이 부상하는 상황은 당시 신문을 통해서도 간취된다. 근대적인 매스미디어가 성립하려면 “‘아동과 여성과 민중’이라는 새로운 계급으로서의 서적 소비자가 출현”<sup>63</sup>해야 했다는 지적이 있듯이, 1920년대 중반 신문은 학교교육을 통해 문해력을 갖추게 된 여성이나 미성년 소년·소녀를 새롭게 매체의 독자로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가령 『동아일보』는 1924년에 ‘가정부인란’과 함께 ‘소년소녀란’을 신설했으며 『매일신보』도 ‘일요부록(日曜附錄)’에 ‘소년소녀’ 코너를 두기도 했는데, 이 특화된 코너들에는 수가 많지는 않았으나 소녀 독자를 겨냥한 ‘소녀소설’로 명명된 작품들이 실리기도 했다. 대개 10대 전후의 어린 소녀들이 등장하는 동화와 달리 이들 신문에 실린 소녀소설에는 10대 중후반의 여학생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가령 『매일신보』에 게재된 「행운」의 주인공 정희는 18세로 S여학교 고등과 4년급에 재학 중이며, 「어엿쁜 희생」의 주인공 혜숙이나 정애 또한 학년이나 나이가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여학교 학생으로 설정되었다.<sup>64</sup>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개벽사의 『신여성』 창간 역시 당시 신문과 마찬가지로 계몽의 목적과 더불어 문화시장의 신중 서적 소비자로 출현한 여학생을 독자로 견인하려는 현실적 의도가 개입되었으리라 짐작된다. 한 서점업자의 회고처럼 3·1운동을 전후로 신문예운동이 발흥하던 1920년대 전반은 “잡지와 단행본 사기를 돈을 애끼지 않았”<sup>65</sup>던 대중 독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였고, 이러한 독서 열기는 여학생도 예외가 아니어서 여학생이 애독하는 서적의 종류에는 앞서 언급했던 소설, 동화와 더불어 ‘잡지’가 자주 언급되었다.<sup>66</sup> 『신청년』, 『개벽』, 『어린이』 등 잡지 기획의 경험

63 이효덕, 박성관 옮김, 『표상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2, 212쪽.

64 「행운」(미소 작)은 1924년 11월30일 1회를 시작으로 몇 차례 연재된 것으로 보이나 3회(12월 7일, 13일) 이후로는 확인할 수 없으며, 「어엿쁜 희생」(마춘서 작)도 1927년 1월 30일에 상편이 게재되었으나 하편은 찾을 수 없었다. 「행운」은 학교공부만 알던 소녀가 오빠의 일탈과 가솔로 경제적 곤경에 빠진 집안 현실에 눈떠가는 과정을, 「어엿쁜 희생」은 여학생 사이의 우정과 이성애에 대한 자각을 그리고 있다.

65 정동규, 「기미이후십오년간 조선문독자의 동태(하)」, 『동아일보』, 1933.9.2.

66 신길구, 앞의 글, 41쪽. 한편 『신여성』이 기획한 「여학생 각인각관」에 참여한 한 하숙집 주인 역시 여학생들이 창가를 잘하고 ‘잡지와 소설’을 즐겨 읽는다고 언급한다. 김숙자, 「여학생 각인각관-하숙옥에서 본 여학생」, 『신여성』 제4권 4호, 42쪽.

이 풍부하고 번안동화집 『사랑의 선물』(1922)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던 방정환이 『부인』을 폐간하고 여학생을 표준으로 한 최초의 대중적 여성지 『신여성』을 창간한 것은 이처럼 여학생이 독서 시장의 유력한 구매자로 부상 중인 상황을 간파한 때문일 수 있다.<sup>67</sup> 다시 말해 여학생에 대한 계몽의 의지 못지않게, 일본과 같은 소녀잡지 혹은 여학생 잡지가 부재한 조선에서 자신들에 특화된 새로운 읽을거리를 요구하는/요구하게 될 소녀 독자의 욕망을 충족하려는 상업적 고려도 『신여성』 발간을 촉진했으리란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방정환과 개벽사의 이러한 『신여성』 창간 의도는 발행 초부터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여성』 2호(1923. 11)에는 발간한 지 열흘도 안 돼 창간호가 모두 팔렸는데 독자들의 주문이 여전히 쇄도하니 보고 난 창간호를 보내주면 “冊價參拾錢을 보내던지 새로나는 책으로 바꾸어”<sup>68</sup> 주겠다는 광고가 실리는가 하면, 4호에도 창간호와 3호를 개벽사로 다시 보내 달라는 내용이 공지되기도 한다.

---

67 『신청년』(1919.1~1921.7)은 경성청년구락부 회원들이 주도한 일종의 동인지로 방정환과 유광열이 중심인물이었다. 또한 방정환은 고문의 자격으로 『신여자』(1920.3-7)의 발간에 일부 관여했으며, 개벽사의 직원이자 창간호부터 『개벽』의 필진으로 참여했다. 주지하듯이 『개벽』은 천도교청년회가 편집부를 편성해 창간한 잡지로, 방정환도 천도교청년회 발기인으로 참여한다. 한편 방정환은 1920년 9월부터 1923년 9월까지 3년간 개벽사 동경특과원이자 천도교청년회 동경지회장으로 활동했고, 청강생 신분으로 도요(東洋)대학 문화학과에서 수학하기도 했다. 아울러 천도교소년회 발족(1921.5)을 주도하기도 했던 방정환은 1921년 말 일본에서 탈고한 번역동화집 『사랑의 선물』을 1922년 7월에 개벽사에서 출간하게 되며, 1923년 3월에는 잡지 『어린이』를, 같은 해 9월에는 『신여성』 창간을 주도하게 된다. 그렇다면 방정환이 일본에 주재하는 기간 창간하거나 기획한 『어린이』와 『신여성』은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던 아동잡지나 여학생 대상 소녀잡지의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적 학제가 일찍 정착한 일본에서는 이미 1895년에 어린이 독자를 대상으로 한 『소년세계』가 창간되었고, 앞서 언급했듯이 여학생 대상의 소녀잡지 역시 1902년 『소녀계』를 시작으로 다수 창간되었다. 한기형, 『『신청년』 해제』, 『서지학보』 제26호, 2002, 249-250쪽; 김경연, 『근대 여성문학의 탄생과 미디어의 교통』, 소명출판, 2017, 99-101쪽; 성강현, 「소파 방정환의 일본 유학 시기 활동」, 『방정환연구』 제6호, 2021, 149-183쪽; 가와하라 카즈에, 양미화 옮김, 『어린이관의 근대』, 소명출판, 2007, 9-72쪽 참조.

68 「창간호를 삼니다-넓으셨스면 팔아주십시오」, 『신여성』 2호, 1923.11, 74쪽.

新女性創刊號는 작년에 三號는 지난날에나는대로 곳 다팔리고 업서젓는 데 지금도 그책을 구해달라고 책이다팔리고 업다고 회답하면 현책이라 도조흐니 제발구해달라고—주문하는이가 수삼명 수십명뿐이 아니고 수백명씩됩니다 다른 서적과달라 잡지인고로 다시박힐수도업고 주문하시는이들을위하여 펍 싹하고 섭섭해그러오니 보신이중에서 창간호나 삼호나 본사로 돌려보내주시면 책값三十錢을 보내든지 다른새책으로 바꾸어보내든지 하겠습시다 다른뜻이 잇는것아니라 보고저 하시는이에게 한권이라도 더 넓게해드리고저하야 그러는것이오니 좀 보내주십시요<sup>69</sup>

(강조는 인용자)

『신여성』에 대한 이러한 독자들의 지지는 비단 편집진의 과장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앙서림 대표 신길구는 여학생들이 즐겨보는 잡지로 『어린이』, 『신소년』과 함께 『신여성』을 언급했는가 하면,<sup>70</sup> 1920년대 중반 여성들의 독서 실태를 분석한 신문 기사에서도 『신여성』은 『조선문단』과 더불어 여성들이 주로 읽는 잡지로 조사되었다.<sup>71</sup>

『신여성』이 이처럼 여학생 독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당연한 지적이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여학생에 관한 담론의 전면적 배치가 주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듯이 『신여성』은 논설이나 평론 등의 계몽적 언설부터 애화·비화·야화·기화·풍자담·탐방기·방문기 등 각종 형식을 빌어 여학생 담론을 본격 생산하고 여학생 관련 여론을 형성한 사실상 최초의 매체였으며, 때문에 여학생에 관한 유력한 공론장으로서 『신여성』에 대한 여학생들의 관심은 당연한 귀결이었을 터다. 아울러 『신여성』은 여학생을 매체의 수동적 소비자로 정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을 필자로 전환하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여학생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추동하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기획이 여학생

69 「신여성 창간호와 3호」, 『신여성』 4호, 1924.4, 60쪽.

70 신길구, 앞의 글, 41쪽.

71 「매우 개탄할 조선녀자 독서열」, 『조선일보』, 1925.1.22. 조선 여성들의 저조한 독서열을 지적한 이 기사는 부립도서관 방문 및 도서대여 현황, 조선도서주식회사와 한성도서주식회사의 도서 판매 현황 등을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

대상 ‘독자란’이었다.

『신여성』이 처음 고정 코너로 만든 독자란이자 여학생 대상 첫 독자 투고란은 ‘여학교통신’이었는데 각 학교의 소식을 전하는 여학생들의 투서로 운영되었다. ‘여학교통신’과 비슷하게 창간 초기 만들어진 또 하나의 독자란이 ‘여학생통신’이다. ‘여학생통신’은 대부분 여학생들이 학교 친구나 선후배 등 사적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보내는 서간으로 채워졌으며, 발신자뿐 아니라 수신자 역시 여성이었고, 편지의 내용은 개인적인 소식이나 의견, 동정을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령 북간도 용정으로 이주하게 된 한 여학생은 급히 떠나느라 작별인사를 나누지 못한 동급생들에게 뒤늦은 안부를 전하며 이국에서의 신산한 처지와 외로움을 토로하는가 하면,<sup>72</sup> 여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한 여성은 학창시절과 학우들에 대한 그리움을 호소하기도 하고,<sup>73</sup> 여동생의 친구에게 동생의 죽음을 전하며 기숙사 물건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하는가 하면,<sup>74</sup> 때로는 친구에게 모종을 보냈으니 심어보라는 일상적인 내용도 포함되었다.<sup>75</sup> 이처럼 ‘여학생통신’은 공적 매체를 통한 사적 교통의 장이 되었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 독자들 역시 편지의 수신자가 됨으로써 서로의 처지에 공감하고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여학생 공동의 커뮤니케이션 공간, 한 논자의 표현을 빌면 ‘소녀공동체’<sup>76</sup>를 형성하는 효과적 장치일 수 있었다.

『신여성』의 이 기발한 기획들은 여학생 독자들에게 꽤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잡지의 또 다른 독자란인 「독자와기자」에 ‘여학교통신’이 잘 게재되지 않는 이유를 물은 한 여학생은 자신의 “학교일도 이약이하고 심흔 것도 있고 남의 학교 일도 알고 심흔 쏘만 아니라 그 학교에 대한 흥미도 갖게 되는 동시

---

72 순복, 「여학생통신-국경밖에 나와서」, 『신여성』 제2권 7호, 82쪽.

73 심화자, 「여학생통신-구준비 오는 날에」, 『신여성』 제2권 6호, 1924.6, 55쪽.

74 영숙, 「여학생통신-죽은 동생의 동모에게」, 『신여성』 제2권 7호, 83쪽.

75 정희, 「여학생통신-모종을 보내면서」, 『신여성』 제2권 7호, 82-83쪽.

76 엄미옥, 앞의 책, 145쪽. 엄미옥은 『신여성』의 ‘여학생통신’을 “자기 학교의 소식과 동정, 사고, 행사 안내, 학교 특징을 소개”(145쪽)하는 코너라 설명했는데, ‘여학교통신’을 ‘여학생통신’으로 오인하거나 둘을 동일한 코너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에 한편으로 친밀성도 생겨”<sup>77</sup> 애독하는 코너가 ‘여학교통신’이라 언급하기도 한다. 한편 속간 이후 『신여성』에는 여학생과 관련한 고정 코너로 ‘여학생신문’이 새롭게 등장했는데, 여학생 독자의 직접 투고로 운영되던 ‘여학교통신’이나 ‘여학생통신’과 달리 여학교나 여학생과 관련한 사건사고나 여학생 사회의 풍조, 동향 등을 취재해 전달하는 형식이었다. 예컨대 『신여성』 제5권 4호(1931.4)에 수록된 「여학생신문」에는 밤길 호신용으로 바늘을 품고 다니는 여학생계의 유행을 전하는가 하면, 동덕여고보 보결입학시험을 치던 학생이 시험문제가 어려워 졸도했다거나, 북간도에서 서울로 입학시험을 보러온 14살 소녀가 뇌빈혈로 사망한 사건, 이화여전 재학생과 동덕여고보 출신 여성의 동반 철도자살사건 등이 실렸다. 이처럼 여학생을 겨냥한 독자란이나 고정란의 운영뿐 아니라 『신여성』은 ‘여학생호’(제4권 4호, 1926.1), ‘7월방학호’(제7권 7호, 1933.7), ‘여학생문제 특집호’(제7권 10호, 1933.10)와 같이 내용 전반을 여학생의 “생활만반을 글로 그림으로 사진으로” 구성하거나 여학생에 특화된 주제를 전면 배치하는 특별호를 지속적으로 기획하면서 여학생인 소녀 독자에 적극적으로 소구했을 뿐 아니라 “남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와 학교당국자”<sup>78</sup> 들을 독자로 유인하려는 의욕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소년기 여학생에 관한 본격적 공론장이자 여학생을 독자/필자로 발탁하고 ‘여학생/소녀’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한 기원적 매체로 역할했던 『신여성』은 여학생들에게 “학교교육 이외에 사회교육을 일편으로 갈으키는”<sup>79</sup> 여학생 잡지로서 여학교와 더불어 ‘소녀’에 합당한 규범을 교육하고 ‘소녀’라는 미성년 여성성(상)을 발명한 유력한 매체로 역할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조선판 여학생 잡지의 기원으로서 『신여성』이 주도하고 발전한 ‘소녀성’의 정체를 살피고자 한다.

### 3 ‘춘정발동기’ 소녀시대와 ‘소녀성’의 발명

77 개성 일여성, 「독자와 기자」, 『신여성』 제3권 1호, 1925.1, 92쪽.

78 「편지를 마치고서」, 『신여성』 제4권 4호, 95쪽.

79 정병기, 「여학생과 신문잡지」, 『신여성』 제2권 12호, 1924.12, 16쪽.

근대 여학교 교육의 목표는 “조선에 유용한 새녀자” “조선적 신여자”의 육성이며,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지식과 부덕을 겸비한 “새조선인(新朝鮮人)의 어머니”<sup>80</sup>, 곧 현모양처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가령 이화학당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사들”이 되는 동시에 “조선여자가 살아가는 생활상태 아래에서 모범적 주부가 되도록 가르”<sup>81</sup>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숙명여학교의 교육 방침 역시 “현사회에 적응하는 부인의 양성”<sup>82</sup>이었고, 동덕여학교가 교지(教旨)로 내세운 “수덕(修德)” 또한 “부덕을 닦는 것을 뜻함(婦德)이요 현모양처를 길러내”<sup>83</sup>는 것이었다.

“활교훈(活敎訓)”<sup>84</sup>을 전달하는 학교 밖의 학교로 자부했던 『신여성』이 여학생 독자들에게 계몽한 소녀상, 다시 말해 “병적 개성을 버서버리고 깊히 내면에 못쳐잇는 진실한 본래성”을 찾기 위해 “허영적 번민”이 아닌 “실질적 번민”을 실천하는 진정한 신여성의 정체 역시 여학교가 혼육한 조선적 현모양처와 다르지 않았다. 『신여성』이 배치한 여성 교육에 관한 언설 주체 대부분은 남성들이었으며, 이들이 강조한 소녀 교육의 목표는 ‘민족적 개조’를 수행할 “신성한 새국민을 길러내는 어머니”<sup>85</sup>이자 “새 시대의 속살림을 주장”<sup>86</sup>할 주부의 양성이었다. 때문에 미래의 “가정주부가 될 운명”을 천직으로 부여받은 여학생들에게 전문 지식보다는 “성위생”, “육아법” 같은 “상식”<sup>87</sup>이나 장차 남편 될 이들이 가정에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가정오락방법”<sup>88</sup>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장래 국민의 모체가 될 신진녀성”<sup>89</sup>이기 때문에 여학생이 자궁병에 걸리지 않도록 학교 의자를 개량하라는 주문이 제출되기도 한다.

80 일기자, 「동덕여학교평판기」, 『신여성』 제3권 2호, 1925.2, 48-55쪽.

81 주요섭, 「조선여자교육사」, 『신가정』, 1934.4, 26쪽.

82 손인수, 『한국여성교육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7, 253쪽.

83 위의 책, 254쪽.

84 정병기, 앞의 글, 15쪽.

85 이광수, 「모성 중심의 여자교육」, 앞의 책, 20쪽.

86 송도망인, 앞의 글, 68쪽.

87 주요섭, 「여자교육개신안」, 『신여성』 제5권 5호, 1931.6, 8-12쪽.

88 주요섭, 「조선여자교육개신안」, 『신여성』 제5권 5호, 16쪽.

89 일기자, 「여성평론-학교의 결상개량 문제」, 『신여성』 제4권 4호, 17쪽.

한편 장래의 현모양처가 되기를 훈육하는 계몽 담론과 더불어 『신여성』에 배치된 것이 ‘춘정발동기(春情發動期)’, 곧 사춘기 소녀의 심리를 분석하는 과학 담론이었다. 1920년대 들어 신문·잡지를 통해 소년소녀 학생들의 풍기 문제가 빈번히 기사화되는데, 이들의 풍기문란 혹은 불량성을 유발한 근본적 원인으로 주로 적발된 것이 사춘기의 심리변화이며, 때문에 청춘기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로 간주되기도 했다. 예컨대 불량 소년소녀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 한 기사는 20세 미만, 특히 14,5세부터 17,8세까지 범피자가 가장 많다는 통계를 인용해 사춘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가 하면,<sup>90</sup> 또 다른 기사는 외계(外界)의 자극을 가장 많이 받는 청춘기에 불량성에 더 취약한 것이 ‘소녀’들이라 지적하기도 한다. 성적 방면에 눈뜬 소녀들이 연애를 무작정 선망하게 되면서 “련인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적막한 마음이 니러나며 거트로 아모 이성이나 붓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성적 범죄를 행하게”<sup>91</sup>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신여성』에도 관철돼 “여자의 사춘기가 가장 위험”하며 “유혹을 받기도 쉬운 때요 또는 불량성을 띄운 여자이면 남의 유혹을 대담스럽게 시험해 보기도 하게 되는 때”<sup>92</sup>라 지적하는가 하면, 때문에 “남의 안해도 되어야 할 것이요 남의 어머니도 되어야 할” 성욕 발동기 여성들의 “동성연애”나 “이성연애”를 잘 지도해야 하며,<sup>93</sup> “교육상의 개혁”을 통해 “본능인 련애”에 눈뜬 여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한다.<sup>94</sup>

“견고한 심지와 순결한 정신”<sup>95</sup>의 여학생, 곧 모범적 주부이자 어머니의 양성을 도모한 『신여성』이 이러한 성교육의 일환으로 동원한 것이 춘정발동기 여성의 변화/위험을 분석하는 심리학적 성 지식이며, 이를 통해 부조한 것이 사춘기 여성의 본능적 특성으로 고안된 ‘소녀성’이다. 2회에 걸쳐 마련된 「연령상으

90 「불량 소년소녀단이 생긴 원인 6」, 『조선일보』, 1925.4.19.

91 「청춘기에 잇는 자녀의 범죄(二)」, 『조선일보』, 1926.3.29.

92 「여학생의 유혹문제 해부(其一)」, 『신여성』 제4권 10호, 38쪽.

93 「여학생의 동성연애문제-동성애에서 이성애로 진전할 때의 위험」, 『신여성』 제2권 12월호, 20-25쪽.

94 팔봉산인, 「금일의 여성의 현대의 교육」, 『신여성』 제3권 6호, 1925.7, 61-67쪽.

95 「여학생의 유혹문제 해부(其一)」, 앞의 책, 37쪽.



로 본 여자의 심리」는 그 대표적 경우일 텐데, 필자로 나선 ‘전문적 심리학자’ 김승식은 이 글에 앞서 「심리학상으로 본 여자」를 『신여성』에 연재한 바 있었다. 말하자면 『신여성』은 여자의 심리를 과학적으로 해부한다는 지상강좌를 4회에 걸쳐 배치한 셈인데, 그 첫 강좌인 ‘심리학상으로 본 여자’에서 김승식이 시도한 것은 남성과는 선천적으로 다른 여성의 특질, 더 정확히는 남성성보다 열등한 여성성의 부각이었다. 실험심리학 등에 입각한 과학적/객관적 지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김승식이 제시한 여성성이란 요약하자면 창조성이 부재하고 ‘모방성’이 강하며 이지적/이성적이 아닌 ‘감정적’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여자는 “순전히 리지적 사건 즉 순과학적 문제가든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논문이나 과학서류보다는 아조 감상적 기분이 농후한 난문학(軟文學) 즉 연애소설가든 것을 가장 탐독”하며, 연애의 경우에도 남성들은 이지적이기에 “의외로 유희적 기분을 가지고” 하지만 여성들은 “아조 일변하여 헌신적으로 덤비”게 되며, 어느 일에서든 남자는 “의무감, 명예심, 리해심가든 것”이 그 표준이지만 반대로 여자는 “비위에 맞고 안맞는 것, 감동가든 것에 기초를 두는 수가 만코 허영심이나 수치심에 인하여 열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sup>96</sup> 아울러 여성의 감정은 남성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데, ‘세상, 의리, 명예’를 생각하는 남성의 감정이 “정의와 도덕가든 방면의 사회덕 정조”와 연결되는 반면 여자의 감정은 “개인중심적이고 사회나 국가분위덕은 아니”며 “사랑에만 매우 깊”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의지상 특질”에 있어서도 의지박약한 여성이 “향상심(向上心)과 노력심이 부족”해 “모험적인 일과 투기적(投機的)인 일을 쓰리고 현상타파를 실행하며” 따라서 만일 세계가 “보수적 인습적”인 “녀자로만 조직되었다면 세계의 정치에 혁명도 업고 세계의 문화에 아모 진보도 업섯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sup>97</sup>

여성들에게 “자기의 성질이나 자기의 심리에 엇더한 부족이 잇스며 엇더한 결함이 잇는가”<sup>98</sup>를 알게 해 여성의 자기 수양을 도모하려 했다는 「심리학상으로 본 여자」에 이어 김승식이 연재한 지상강좌가 「연령상으로 본 여자의 심리」이

96 김승식, 「심리학상으로 본 여자-모방성과 감정에 대하여」, 『신여성』 제4권 7호, 26-31쪽.

97 김승식, 「심리학상으로 본 여자(續)」, 『신여성』 제4권 8호, 1926.8, 14-20쪽.

98 김승식, 「심리학상으로 본 여자-모방성과 감정에 대하여」, 앞의 책, 27쪽.

다. 역시 2회에 걸쳐 게재된 이 글에서 김승식은 앞선 강좌에서 상술했던 여성 특유의 심리적 특질이 본격적으로 발원하는 ‘소녀기’, 특히 “급격하게 남녀간의 심리적 경향의 차이가 선천적으로 현저히” 드러나는 이른바 “춘정발동기”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미성년 여성의 생애주기는 “아직 성적 분화가 그러케 심하지 않은” 아동기인 유녀시대와 “성적 분화에 드러가는” 소녀시대와 처녀시대로 구분 가능하다. 10대 전후의 소학생 시절인 유녀시대에는 “가사에 대한 세미한 주의나 취미” “화장의 본능”을 드러내는 등 “특이한 녀성적 허영” “녀자의 허식 본능”을 내보이기도 하지만 남아와 다른 “연구할만한 현저한 차별”이 두드러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녀시대를 지나 “월경이 처음 도는 시기”인 15,6세까지의 소녀시대, 즉 남성과의 신체적 차이가 분명해지는 시기로 접어들면 “분명하게 녀성 특유의 심리적 경향이 성격의 표면”에 나타나며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인 여성의 본능이 본격적으로 발현돼 “심중에 말할 수 없는 불안”이나 “자기의 미, 자기의 아는 것을 남에게 자랑”하려는 태도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의 숨기라고 애쓰는 결점”을 남에게 감추려는 데서 비롯하며 “애교와 아양부림” 역시 이러한 “정신적 결점을 숨기”려는 행위라 지적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김승식은 소녀시대 여학생들 사이에 강한 “친우 관계”가 나타나는 현상 역시 이 시기 특유의 심리에서 유래한다고 설명하는데, 소녀기의 “심적 불안”을 누르기 위해 부모나 가족보다 “자기와 전혀 가튼 심리상태를 가지고 잇는 동무 중에 적당한 이 약이 상대자를 차저서 서로 비밀히 그 일을 이약이하”고 “풍부한 정분”을 나누려 하며, 때로는 친우들 사이에서 마치 “성적 관계로 하여 인증되는 듯한 별별 질투와 반감과 췌와 증상”이 나타나 소녀의 마음에 눈물을 자아내게도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동성 간 친우관계, 혹은 동성에적 감정은 소녀시대를 지나면 해소되지만, 그러나 이를 유발한 “불안과 거기에 가치 생기는 과시적 태도”는 “소녀시대에 발생하면서부터 부인의 일생을 두고 보존해”가며 외려 “나히가 들 수록 그 표시가 더욱 로련하여”진다고 설명하고 있다.<sup>99</sup> 말하자면 10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소녀성’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항구적/선천적인 여성성이라는 의미이며, 따라서 여성은 본질적으로 남성과는 다른 미성숙한 존재라는

99 김승식, 「연령상으로 본 여자의 심리(一)」, 앞의 책, 15-21쪽.

인식이 함축된 셈이다.

한편 김승식은 소녀시대를 지나 17,8세부터 20세 안팎의 시기를 ‘처녀시대’<sup>100</sup>라 명명하고 이때를 “춘정발생기라고 이름붙칠 중대한 일대전기”<sup>101</sup>, 곧 여성의 사춘기가 본격화되는 때이며 또한 “가튼 년배 되는 남성의 심적 경향에 비교하여 가장 현저한 대조적 차이를 보이”는 시기라 설명한다. 주목할 점은 필자가 부각한 사춘기 남녀의 “정신생활의 비상한 차이”인데, 김승식에 따르면 사춘기의 “남아는 다만 무사기하고 쾌활하여서 힘량(力量)과 학식을 연마하여 다만 생의 충동대로 전혀 자유로 쉼돌며 날을 보내는데 그와 반대로 처녀로는 벌써 깊은 ‘성의 번뇌’가 가만히 그 심신에 뿌리잡혀 드러오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남아와 달리 사춘기 처녀는 “이성적 자각이 생기는 동시에 본능적으로 남자의 주의를 끌어붙치라고 하는 정신적 노력이 확실히 언어행동상에 나타나오는”데, 이 때문에 소녀시대와 같이 “동성의 동무에게 대한 우정 관계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성에게 대하여 이상한 흥미를 늦기게” 되며 이를 “부정부덕(不正不德)한 것처럼 스스로” 느껴 부모형제에게 숨기기 위한 “녀자심리에 특유한 ‘거짓말’이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춘기는 남성에게는 외려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때인 반면, 여성에게는 “만성병”이라 할 수 있는 ‘거짓말’뿐 아니라 “세상의 남성을 제절로 의식하고 동경”해 “상중류계급 이상”의 자녀는 물론 “하녀이거나 녀직공이거나 시골색씨거나” 이 시기의 여자들은 모두 “세상의 유행과 현대적 경향”을 좇으려는 욕구가 나타나는 가장 위험한 시기라 는 것이다.<sup>102</sup>

---

100 김승식은 대략 14-16세를 소녀시대로 17-20세 내외를 처녀시대로 구분해 명명하는데, 당시 ‘소녀’와 ‘처녀’는 연령에 기반해 엄격히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되기보다 ‘미성년의, 혼인하지 않는 여자’를 지시하는 용어로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녀’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종래의 ‘처녀’가 그 의미를 지시하는 어휘로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광수의 소설 「소년의 비애」(1917)에서 ‘소년’에 대응하는 용어로 소녀가 아닌 ‘처녀’가 사용된 것을 통해서도 짐작 가능하다. 아울러 앞서 언급했던 계열의 『한영자전』에도 1897년판에는 ‘처녀’를, 1911년과 1931년판에는 ‘처녀’와 ‘소녀’를 ‘girl’에 해당하는 조선어로 기재하고 있다. 김승식 역시 소녀시대를 ‘처녀기’로 명명하는 등 ‘소녀’와 ‘처녀’를 혼재해 사용하고 있다.

101 김승식, 「연령상으로 본 여자의 심리(一)」, 21쪽.

102 김승식, 「처녀시대의 심리-연령상으로 본 여자의 심리(二)」, 『신여성』 제4권 10호,

이처럼 ‘소녀시대’와 ‘처녀시대’를 여성에게 성적 분화와 성적 번민이 일어나는 시기로 파악하고, 이 시기의 ‘소녀성/처녀성’, 곧 10대 여성성을 청소년 남성성과 달리 여성 특유의 거짓말과 유행에 탐닉하려는 허영 본능이 농후해지는가 하면 “다분한 공상과 주관적 기분의 충동”에 의해 “낭만적이며 감상주의적”<sup>103</sup>인 부정적 특성으로 주조하려는 시도는 비단 김승식의 지상강좌 같은 전문가적 지식의 동원뿐 아니라 『신여성』에 배치된 각종 형식의 서사를 통해서도 강화되었다. 가령 ‘처녀심경수필’로 지시된 「언니, 저 달나라로」에서 16세의 소녀는 동성인 S언니에게 막연한 사모의 정을 느끼며 맹목적 사랑을 구하는 “공상과 동경에 아로새겨진 센티멘탈”한 존재로 표현되는가 하면,<sup>104</sup> 방인근의 장편소설(掌篇小說) 「두 처녀」에 등장하는 여학생 L과 K 역시 “동성연애를 한다고 다른 동모가 놀”릴 만큼 돈독한 사이였으나 전문학교 남학생이 등장하자 우정은 파탄나고 남자의 거짓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취약한 존재로 재현되고 있다.<sup>105</sup> 그런가 하면 ‘여학생 일기’<sup>106</sup>나 ‘여학교기숙사비화’<sup>107</sup> 등에 등장하는 소녀들 역시 실제적이거나 공적인 관심보다는 미문의 러브레터를 기다리거나 남학생과의 연애 행각을 즐기며 경쟁적인 소비에 몰두하는, 현실을 몰각한 몽상적이고 허영적인 존재로 그려지기도 한다.

10대 여성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이고 정형화된 재현은 ‘여학생의 위험시대’ ‘여학생수난비화’ ‘여학생수난실화’와 같은 실화·비화·고백담 등의 형식을 빌려 부단히 재연되는데, 이들 서사에서 부각된 것 역시 여학생들의 위난(危難)이 근본적으로 “녀학생시대”<sup>108</sup>에서 발원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녀학생의 위험지

21~24쪽. 목차의 제목은 ‘사춘기 처녀의 심리’이다.

**103** 백철, 앞의 글, 35쪽.

**104** 김순영, 「처녀심경수필-언니, 저 달나라로」, 『신여성』, 1933.6, 54-56쪽.

**105** 방인근, 「두 처녀」, 『신여성』 제5권 9호, 1931.10, 88-89쪽.

**106** 「여학생 일기-얼굴이 붉어지는 가지가지 기록」, 『신여성』, 1933.6, 143쪽. ‘여학생 일기’는 여학생이 직접 쓴 글이 아니라 4명의 잡지 편집진(월견초, 물망초, 자양화, 김사조)이 여학생의 성향이나 취향, 관심 등을 고려해 여학생이 쓰는 가상 일기 형식으로 쓴 가벼운 읽을거리이다.

**107** 윤봉순, 「여학교기숙사비화-명량한 제복의 처녀」, 『신여성』, 1933.6, 136쪽.

**108** 「여학생수난비화」, 『신여성』 제7권 10호, 43쪽.

대”는 “먼저 녀학생 그네들의 마음 속에 자리잡”힌다는 것인데, “치녀로서의 긴장을 푸러던지”게 하고 “이팔소녀의 가슴을 울녕거러키고 모험심을 이르켜”<sup>109</sup> 내는 그 위험한 마음이란 사춘기 소녀 특유의 ‘센티멘탈리즘’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적시되었다. 때문에 여학생 수난담은 대부분 “센치멘탈(感傷)에 저즌 소저가 유혹압해 얼마나 무력하게 쓸려가버”<sup>110</sup>리는가를 경고하는 서사였는데, 특히 계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배치한 것이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생겨진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들”이었다. 가령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간 한 소녀는 “학창생활의 마지막 려행이라는 것이 이상스럽게 가슴을 안답갑게 또 센치하게” 해 4년 동안 배워오던 담임선생의 다정한 시선과 유혹의 목소리에 “자귀 역시 엇지할배를 모를만큼” 충동을 느껴 불륜 행각을 벌이다 적발되는가 하면, “호남아요 씩씩한 스포츠맨이였지만 여자 압해는 껍도 다정한” 젊은 바스켓볼 코치에게 마음을 빼앗긴 여학생은 학교에서 코치와 애정을 나누다 퇴학당하고, 서울 모 여학교 소녀 역시 음악선생과 연애출분사건을 일으켜 퇴교당한다. 이렇듯 사제지간의 수다한 불륜서사를 통해 『신여성』이 부각한 것은 유혹자인 선생보다 유혹당한 소녀의 취약한 마음이었다. 다시 말해 여학생 비화(秘話)들이 적발한 것은 남성-교사들의 반윤리적 행태라기보다 외려 “고민을 익이지 못하고 비판의 눈을 쓰지 못하고 리성의 들창이 다쳐 “저 “맹목적 정염의 불꽃 속으로 썩어들어가는” 여학생 소녀들의 마음인 것이다.<sup>111</sup>

따라서 이 위험한 마음, 곧 여성 특유의 감정적인 본능과 성적 번뇌와 “로맨티시즘”과 “센티멘타리즘”<sup>112</sup>으로 구성된 ‘소녀성’은 아이 낳기와 살림살이라는 여자의 “천직에 대하여 자존심”을 갖고 “민족과 향토와 가정과 학교에 대하여 자존심”<sup>113</sup>을 가진 현모양처를 양성하는 데는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때문에 사춘기 여성성이 발동하는 10대 소녀들은 이른바 ‘생의 충동대로 자유롭게 성장’하는 소년들과 달리 “학교당국자로나 학생자신으로나 또는 일반학부형”에

109 「여학생의 위험지대」, 『신여성』 제7권 10호, 38쪽.

110 위의 글, 40쪽.

111 위의 글, 38-42쪽.

112 백철, 앞의 글, 35쪽.

113 이만규, 「여학생에게 보내노라」, 『신여성』, 1933.7, 12~15쪽.

이르기까지 “평소에 특별한 주의경계”<sup>114</sup>가 필요한 존재로 조형되었다. 이렇듯 유혹에 취약한 소녀기의 여학생 독자들을 미래의 현모양처로 훈육하기 위해 『신여성』이 마련한 또 다른 기획이 바로 소녀성을 순치하지 못해 타락한 ‘불량소녀’의 전시였다.

#### 4 ‘불량소녀’의 전시와 소녀 길들이기

“완전무결한 장래의 모범덕 여성”<sup>115</sup>을 계몽한 『신여성』에 외려 허다하게 등장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건고한 의지와 순결한 정신’을 지닌 소녀들이 아니라 ‘불우하거나 불순한’ 소녀들이었다. 1910년대부터 신문·잡지가 줄곧 서사화한 재래의 악습에 희생된 소녀들의 비극은 『신여성』에도 비중 있게 부조된다. 예컨대 여학교에 다니던 16살 나이에 어머니가 맺어준 남성과 혼인했던 부잣집 소녀는 부도덕한 남편에 모든 재산을 갈취당한 끝에 기생 노릇을 하며 남동생을 뒷바라지하고,<sup>116</sup> 시골 보통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서울 여학교에 입학해 공부하던 얼굴 곱고 암전한 18살 판순은 아버지가 빌린 돈을 대신 갚기 위해 부랑패악한 부자의 소실로 들어가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sup>117</sup> 재주가 특출나서 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려 했던 또 다른 소녀는 굶을 하면 어머니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미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몸을 팔기도 한다.<sup>118</sup> 이처럼 죄없이 고통받는 순결한 소녀들을 연민하고 이들을 유린한 퇴행적 구습을 고발한 ‘박명소녀’들의 애화(哀話)와 더불어 『신여성』이 더 공들여 배치한 것은 ‘불량소녀’들의 타락서사였다.

박명소녀들이 비극에 이른 내력이 유사하듯 『신여성』이 적발한 불량소녀의

114 「여학생수난비화」, 앞의 책, 43쪽.

115 손정규, 「각 학교 당국자의 학생가정에 대한 희망과 주의-나의 다섯 가지 희망」, 『신여성』 제4권 4호, 22쪽.

116 「부잣집 규중처녀가 청루에 몸이 빠지기까지」, 『신여성』, 1924.5, 64-72쪽.

117 방재욱, 「여학생 야화-비운의 숫」, 『신여성』 제2권 8호, 1924.10, 37-43쪽.

118 손성엽, 「나이 짧은 동무여 이 사실을 보라-미신이 나온 비극」, 『신여성』 제5권 3호, 1931.3, 82-86쪽.

탈선 원인 역시 대동소이했는데, 소녀들의 타락을 유발하고 여학생의 풍기문란을 조장한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허영(심)’이었다. “허영에 취하기 쉬우며 쇠임에 끌리기 쉬웁고 공상에 혹하기 쉬운”<sup>119</sup> 청춘시대의 여학생을 경계하는 언설은 1920년대 초부터 목격되는데, 사춘기 소녀와 허영을 결부하는 담론은 『신여성』에 오면 더 빈번히 확인된다. 가령 『신여성』이 ‘여학생 잘못, 남학생 잘못’이라는 주제로 공모한 글에서 남학생들은 여학생을 “발뼀으로브터 머리숱까지 허영으로만 가득 찬”<sup>120</sup> 존재로 비난하는가 하면, “너학생 잘못 중에 데일 한심한 일”이 “사치와 허영”<sup>121</sup>이라 비판하기도 한다. 한편 또래의 남학생들뿐 아니라 가부장적인 교육자들 역시 유사한 견해를 피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컨대 배화여고 교장 이만규는 여자가 걸리기 쉬운 악덕이 “허영에 취하는 것”<sup>122</sup>이라 지적하는가 하면, 중앙고보 교장 현상윤 또한 여학생이 “입으로는 나이팅게일을 부르짓이고 큐리부인을 칭송하는지 알 수 업스나” “행동에 나타나는 것을 보아서는 그러케 이상이 고상한 것 갖지 안”으며 “허영과 개인의 향락주의”<sup>123</sup>에만 골몰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은 『신여성』에 실린 「당세 여학생독본」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데. “전시대 인간의 인심을 어드려 안”고 “첨단적 기풍을 극력지지”한다는 ‘울금향’이라는 가상의 필자를 내세운 이 글에서 여학생은 1년생일 때는 “구두를 사신고 저벅저벅 거름을 거르면서 빙긱빙긱 웃”고 2년생 때는 “초-코레트와 동성연애의 의미를 알고는 세상이 명랑”해 보이며 3학년이 되면 “연애편지란 것을 받고 얼굴을 붉히”는 존재, “아름다운 모양쟁이요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그리고 회화술이 기묘하고 또 교제가”<sup>124</sup>인 존재로 풍자되고 있다.

그렇다면 여학생의 허영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앞서 김승식의 강좌에서 보듯 여학생의 허영은 학생이라는 신분보다 대개는 여성 특유의 “자아중심과 과

119 솫발심, 「너학생문데(四)-너학성과 사회」, 『동아일보』, 1920.9.12.

120 부평초, 「너학생과 눈이 마조 치면」, 『신여성』 제2권 5호, 1924.7, 45쪽.

121 하○규, 「너학생의 비밀한 잘못」, 『신여성』 제2권 5호, 47쪽.

122 이만규, 「여학생에게 보내노라」, 『신여성』, 1933.7, 15쪽.

123 현상윤, 「조선여학생에게 보내는 글」, 『신여성』 제7권 10호, 19쪽.

124 울금향, 「당세여학생독본」, 『신여성』 제7권 10호, 64-69쪽.

시본능”<sup>125</sup>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사춘기 소녀성에서 발동하는 것으로 적시되고 있다. 때문에 중상류층 여학생뿐 아니라 하녀나 직공이나 시골 색씨나 춘정 발동기의 소녀들은 모두 “웃치레, 머리치레, 몸단장, 취미와 기호가튼 것에도 세상의 유행에 무관심하고 잇기는 도저히 될 수 업”으며 “현대적 경향이튼 것에 눈을 붓치게 된다”<sup>126</sup>는 것이다. 이렇듯 허영은 소년이나 소녀 특유의 탈선 원인으로 간주되는데, 소녀의 허영심을 더욱 악화시켜 급기야 타락으로 유인하는 동인이 경박한 ‘현대적 경향’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뺨·겉(불량소녀)은 현실자본주의사회의 필연적 존재’<sup>127</sup>라는 언급에서 간파되듯이, 여학생의 불량성은 “허영적 번민” 혹은 “헛번민”<sup>128</sup>으로 가득찬 소녀성과 현실자본주의사회의 제 경향이 만들어낸 합작물로 납득된 것인데, 이 부박한 현대적 경향으로 주로 적발된 것은 연극이나 활동사진, 연애소설과 같은 통속적인 대중문화였다. “청춘기 소년소녀들의 마음을 제일 만히 이끄는 것은 연극 활동사진 조치못한 소설”이며, 특히 이러한 통속적 문화를 접하고 “모르는 번민과 고통이 생기고 그것이 더 롱후하여지면 자연히 불량성을 띄게 되는” 것은 “남자보다는 청춘기 소녀들에게서 더 만히 볼 수 잇”<sup>129</sup>다는 주장이 빈번히 제기된 것이다.

“연극장 활동사진관에 출입이 잦고 연애소설을 열중하여 넓으며 조치 못한 동무들과 썰을 지어 하이카라만 하고 다니는 소녀들을 미행하면 몇칠이 못가서 재업시 불량청년의 유혹을 밧고”<sup>130</sup> 마는, 이른바 불량소녀의 탄생을 목격할 수 있다는 종류의 언설은 『신여성』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가령 『신여성』의 대표적 풍자독물인 「은파리」에서 “여학생 뒷탐정”을 자처한 은파리는 “퓌 암전하게 생긴 얼굴이지만 이마우에 압머리를 가위로 베인 것을 보닛가 모양도 내이고 십어하는 아가씨가 분명”해 한 여학생을 미행한 끝에 어머니에게는 연설회에 간다고 속인 뒤 남학생과 연극장에 드나드는 불량소녀라는 사실을 밝혀내며, “압머리에

125 김승식, 「연령상으로 본 여자의 심리(一)」, 앞의 책, 19쪽.

126 위의 글, 23쪽.

127 일독서자(一讀書者), 「‘뺨·겉’이란 무엇」, 『동아일보』, 1931.7.27.

128 이성환, 앞의 글, 31쪽.

129 「청춘기에 잇는 자녀의 범죄(二)」, 『조선일보』, 1926.3.29.

130 「청춘기에 잇는 자녀의 범죄(三)」, 『조선일보』, 1926.3.30.



가위질하는 여자치고 허영심 적고 연애소설 안 읽는 사람은 업”<sup>131</sup>이라고 일갈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여학생의 독서 경향이 “새세상과 새지식을 세우고 엮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센치멘탈한 기분이 나는 연애소설이나 감상문가튼 것”<sup>132</sup>에 편중되었다고 지적하거나, 이러한 “저열한 연애소설등류는 순결한 처녀의 마음을 상할지언정 잇는 바는 업슬것”이며 “극이나 영화의 好否를 식별할만한 준비”가 부족한 여학생들이 연극장이나 영화관에 가는 것은 항상 “유혹”<sup>133</sup>이 따르는 것이라 경계하는 발화 역시 흔히 제시된다. 여학생의 성욕에 대한 관리/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글에서도 이와 유사한 견해가 피력되는데 “조선서 유행하는 연애의 서간이니 연애의 무엇이니 하는 것은 연애의 지식을 가리켜주는 것이 안이고 연애의 행사하는 방법뿐이요 그 방법으로도 가장 저열한 것”이니 “연애의 지식이 업는 우리사회에서는 가장 기피하여야 할 것”<sup>134</sup>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사춘기 소녀의 허영적 번민을 자극하고 불량성을 조장하는 원인으로 적발된 현대적 경향은 비단 저급한 연애서류나 활동사진, 연극과 같은 대중문화만은 아니었는데, 여학생에게는 학교에 다니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근대적 경험 자체가 허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종종 지목되기도 한다. 예컨대 학교를 마치고 시골로 내려간 한 여학생이 편지를 통해 “시골에는 우리들이 사회를 위하여 쏘는 민족을 위하여 일할만한 터전을 만드려노치 아니” 했으니 “고학을 하면서라도 도회에서 배우”고 싶다고 토로하자, 수신자인 선생은 “시골이 답답하고 서울이 시원하다는 생각부터 허영에서 나오는 말”이며, “농촌에 잇는 보통학교 마친 여자, 혹은 강습소나 마친 여자, 쏘는 서울 와서 좀 낯흔 학교나 마친 여자는 모도다 허영”<sup>135</sup>에 썩어있다고 질책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여학생의 위험지대를 추적하던 서사는 여학교시대에 외려 출중하게 뛰어날 때 “마음이 허영에 눈뜨게 되어 공명심을 향하여 다름질치려고” 하며, 이때 “차저와주는 여러 가지 화려한 기회-그것은 싹닥하다가 탈선의 길을 밟게하고 다시 피어나지 못할 시드른 솟송이

131 목성記, 「은파리 3」, 『신여성』 제2권 8호, 65-70쪽.

132 신식, 앞의 글, 6-7쪽.

133 박로아, 「여학생의 취미검토」, 『신여성』 제5권 5호, 1931.6, 72-74쪽.

134 「여학생과 동성애문제-동성애에서 이성애로 진전할 때의 위험」, 앞의 책, 25쪽.

135 이성환, 「새해 첫날에 오고간 편지 한 장」, 『신여성』 제4권 1호, 1926.1, 18-25쪽.

의 신세”<sup>136</sup>가 되기 쉽다고 경고하며, 그 사례로 서울 여학교의 시 잘 쓰기로 이름 높았던 소녀가 “연애롬펜의 여왕이 되고 서울의 불량소녀의 웃두목”이 된 내력을 전하기도 한다. 시로 명성을 얻게 된 소녀에게 낯모르는 문학 지원자라는 청년들이 모여들어 그들과 더불어 문학 이야기도 하며 꺾다점도 다니게 되면서 소녀는 자기가 여왕과 같이 뛰어나다는 느낌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다 전문학교에 다니던 청년과 연애를 하지만 남자에게 아내와 자식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뒤 “술 마시는 것도 배우고 담배 피우는 것도 배우고 술집(카페)카튼 곳으로 사나이들과 추측해 도라단이는 것도 배워”<sup>137</sup> 출중했던 여학생은 끝내 불량소녀의 두목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타락서사의 전말이었다.

여학생의 재능이 되레 탈선을 조장한다는 이러한 언설뿐 아니라, 미래의 주부와 어머니로서 갖추어야 할 상식이나 교양과 무관한 지식에 대한 욕구 자체가 허영의 발로라는 견해 역시 제출되기도 한다. 여학생을 동생으로 둔 오빠가 여자고등보통학교 교장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취한 글에서 발신자인 오빠는 여교보를 마친 누이가 가정형편이나 소질은 고려하지 않고 음악공부를 하겠다고 조르다가 결국 문학을 배우겠다고 해 전문학교에 보냈더니 집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넉넉하지 않자 “칼레지 생활이란 유쾌하여야 하고 돈걱정 가튼 것을 하여서는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그만두고, 취직을 했으나 월급은 자신의 외양을 치장하는 데 모두 소비하고 있다고 개탄한다. 이런 누이 때문에 비애를 느낀다고 토로한 필자는 여동생의 “학문열”이 “학문에 대한 애착이라거나 연구욕이라거나 성공욕이라는 것보담도 한 개 물거품가튼 허영”에서 비롯된 것이며, 취업전선에 나서는 이유 역시 “생활난을 돕는다거나 압날의 어느 불행을 위한 예방선이라거나 하는 것보담” “허영심이 먼저 그러케 움직여주는 것”이라 지적한다. 이러한 탄식 끝에 필자인 오빠는 여학교 교육이 “가정생활에 대하여 또는 여성으로서의 교양에 또는 모성으로서의 교양에 충실”하기보다 “화려한 공상에 놀고 또는 그 어떤 반항심에 열사혀노는” 여성을 배출한다고 비판하며, “암암리에 허영과 불

136 「여학생의 위험지대」, 앞의 책, 42쪽.

137 위의 글, 55쪽.

만의 씨만 던져주어서 관념에 사로잡힌” “허영병자”를 만드는 것이 아닌 “여명 조선이 요구하는 신여성을 길러내여” 주는 교육을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sup>138</sup>

미래의 현모양처를 초과하는 소녀들의 “정열, 동경, 이상, 희망, 성공”<sup>139</sup> 등을 이처럼 일체의 ‘허영’으로 적시한 『신여성』은 가부장적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불순한 열정을 수습하지 않는 소녀들을 ‘불량소녀’로 표상하고, 부적절한 정념을 발동한 대가로 불행으로 점철되고 참회로 귀결되는 이들의 서사를 배치함으로써 사춘기 소녀들의 위험한 욕망을 관리하고자 했다. 「일즉이 첩 되얏든 몸으로」는 이러한 불량소녀 참회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독해된다. 고백의 형식을 빌려 사실효과를 부각한 이 서사에서 주인공 혜란은 앞서 언급한 소녀들이 타락에 이른 경로를 고스란히 밟고 있다. 보통학교 시절부터 부모 몰래 연애소설을 읽다가 16살 무렵 동경하던 연애를 친구의 오빠와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 “겨우 두 서너 달 차이지만 학생의 구분이나 모양은 전혀 변해버리는” 고등보통학교 시대부터는 “소설을 막 탐해 읽는 동시에” “우중을 드를만치 모양을 내”기 시작한 혜란은 “연애만한 쾌락은 업”다는 “맹목덕 감정”에 빠져 결국 18살에 정조를 깨트리게 된다. 그리하여 여고보 4학년 때에는 “벌서 훌륭한 불량소녀”가 된 혜란은 “꽃다운 고소한 언사”에 현혹돼 전문학교 학생과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약속했으나 예의 본체가 있는 유부남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남자와의 관계는 파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뒤늦게 용서를 구하려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비극적 효과를 고조시킨 서사는 혜란이 “전날의 지은 죄를 속박치기 위”해 고무공장에서 일하며 학교에 다니는 남동생을 위해 헌신하고, 그의 출세를 위해 “더럽힌 몸”을 희생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sup>140</sup>

『신여성』은 이렇듯 혜란의 “그릇된 력사”<sup>141</sup>를 주조함으로써 불순한 정념을 발동한 불량소녀의 최후를 여학생 독자들에게 충격적으로 각인한 한편, 가부장/아버지를 위반한 딸이 구제받는 유일한 길은 남동생이나 오빠와 같은 미래의 가

---

138 사우춘, 「여자고등보통학교 교장선생전 상서-어느 오래비의 편지」, 『신여성』 제7권 3호, 1933.3, 14-19쪽. 투고된 편지라기보다 창작으로 판단된다.

139 백철, 앞의 글, 35쪽.

140 혜란, 「일즉이 첩 되얏든 몸으로」, 『신여성』 제3권 5호, 1925.5, 62-68쪽.

141 위의 글, 62쪽.

부장을 위해 희생하는 누이로 속신하는 것임을 고지한다. 말하자면 혜란/불량소녀의 참회기란 기실 가부장체제가 소녀에게 부과한 젠더규범을 훈육하는 일종의 교육서사인 셈이며, 따라서 독자들의 “거울이 되는 동시에 자기의 뉘우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비밀히 가슴에 품”<sup>142</sup>은 비화를 공개한다는 혜란의 고백/목소리는 가부장의 복화술로, 아버지를 배반한 ‘불량소녀’ 혜란이나 남동생을 위해 희생하는 “굿센 여자”<sup>143</sup> 혜란은 가부장의 불안과 욕망이 주조한 상상적 구성물로 독해 가능한 것이다. 『신여성』은 아버지와 선생, 오빠나 남동생을 대리발화하는 이 가공의 소녀를 수다하게 전시함으로써 가령 “여자는 남자의 밋해서 곱게 일생을 보내야한다”는 현모양처주의를 비판하거나 교사는 “학생을 인형 취급” 말고 “남녀의 국경을 두지 말고 서로 지도”<sup>144</sup>해 달라고 요청하는 실재하는 소녀들의 목소리를 빈번히 누락하거나 은폐하면서 가부장주의가 욕망하는 소녀, 곧 “참다운 새 어머니의 길”<sup>145</sup>을 가는 순량한 소녀를 창안하고자 한 것이다.

## 5 나가며-소녀의 근대를 탐사하기 위하여

가라타니 고진은 풍경이나 내면과 더불어 근대에 발견된 것이 ‘아동’이라 지적한 바 있다. “무지, 감각, 유순, 진솔”한 존재로서의 어린이란 근대의 아동문학자들, 즉 낭만주의적 꿈이나 퇴행적 공상으로 도피한 어른들에 의해 발견된 것이며, ‘어린이다움’을 체현한 “진정한 어린이”란 실상 존재하지 않는 단지 관념적 표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sup>146</sup> 아동과 마찬가지로 ‘소년’ ‘소녀’ 역시 근대가 발명한 또 하나의 사회문화적 구성물이며, 따라서 근대의 ‘아동/어린이’의 함의가 전근대의 ‘오희(아이)’와 같지 않듯이 서구의 번역어이자 가부장적 민족주의가 발견한 ‘소년’ ‘소녀’ 역시 전시대의 ‘소년’이나 ‘소저(小姐)’와는 이질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앞서 살폈듯이 신대한·신민족을 건설할 주체로 창안된 근대의 ‘소

<sup>142</sup> 위의 글, 62쪽.

<sup>143</sup> 위의 글, 68쪽.

<sup>144</sup> 「여학교졸업생이동좌담회」, 『신여성』 1931년 4월호, 69쪽.

<sup>145</sup> 사우춘, 앞의 글, 18쪽.

<sup>146</sup>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옮김,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6, 151-179쪽.

년'이란 전근대를 환기하는 '노년'과 분별되고 '방탕한 소년'과도 식별된 몸도 마음도 기운도 곳곳한 꽤남아를 의미했으며, 따라서 '소년 여자' 혹은 '소녀'가 누락/배제된 '소년'의 젠더는 기실 남성이었던 셈이다.

이 글은 소년의 구성적 외부로 존재했던 '소녀'의 근대를 탐사하고자 했으며, 남성중심적 시선/육망 속에서 소년다움과는 다른 '소녀다움' 혹은 '소녀성'이 구조되고 가부장체제에 부합하는 소녀를 훈육하기 위해 '불량소녀'라는 가공의 형상을 부조했던 기원적 상황을 추적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소녀의 존재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한 '여학생'에 주목했으며, 근대의 각종 재현 미디어들, 특히 여학생을 주요 독자로 호명하고 여학생과 관련한 담론을 생산하면서 사실상 최초로 여학생을 겨냥한 대중잡지를 표방했던 『신여성』을 '소녀'라는 형상을 구성한 유력한 시원적 매체로 재독했다. '소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대개 아동으로서의 소녀·소년에 주목하면서 10대 중후반의 청소년기/사춘기 소녀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으며, 때문에 주로 여자고등보통학교나 혹은 전문학교에 다니는 20세 미만의 여학생을 주요 독자로 상정했던 『신여성』에 대한 기존 연구 역시 근대적 '지식인 여성'으로서의 여학생을 주로 천착하면서 '소녀'로서의 여학생은 외려 간과되었다. 이 글이 『신여성』을 최초의 조선판 여학생 잡지이자, "여성으로서의 교양을 쌓고 실력을 길러 사회의 기초가 되고 훌륭한 한국의 여성들이 되"<sup>147</sup>기를 계몽하면서 10대 여성(성)에 대한 담론과 표상을 구조해온 대중적 소녀잡지들의 부분적 기원으로 다시 읽고자 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여학생을 표준한 잡지였으나 『신여성』에서 여학생/소녀는 시선의 주체보다는 줄곧 응시의 대상이 되며 스스로 발화하기보다는 더욱 빈번히 대변되고 있다. '박명소녀'로 재현된 그들은 순결하지만 세상에 무지하기에 보호받아야 하며, '불량소녀'로 조형된 그들은 건강한 지성보다는 불순한 정념을 발동해 타락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감시는 정당화되었다. "학식이나 인격이나 선이나 덕성을 교양하여 너으려 하지 아니하고 한갓 미려한 의복이나 입으려"<sup>148</sup> 진력하며, "사상경

---

147 박기세, 「창간에 즈음하여」, 『여학생』 창간호, 1965.11.10. 천정환, 『시대의 말 육망의 문장』, 마음산책, 2014, 227쪽 재인용.

148 현상윤, 앞의 글, 18쪽.

향은 펴으나 유치”<sup>149</sup>한 반면 “계속적 충동과 유혹”<sup>150</sup>에는 취약한, 순진하지만 위험한 존재로 상상된 ‘소녀’는 미래의 새 국민을 길러내는 어머니의 주조를 욕망한 가부장체제가 항상적으로 단속하고 순치하고 계도해야 할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여성』을 지배한 이러한 가부장성 혹은 가부장이 기획한 가공의 ‘소녀(성)’는 이를 의심하고 이의를 제기하며 ‘다른 소녀’를 주장하는 실제하는 소녀들에 의해 이미—언제나 훼손(毀折)되는 것이기도 했다. 예컨대 여학생의 허영을 비난하는 남성들을 향해 남자들은 “예술도 아는 테 정치도 아는 테 모든 것을 남의 압해 힘써 아는 테 하지만 결코 아는 테만 가지고 되는 일은 업슬 것”이며 “젊은 남자들이 여자들 녀학생들의 압해서는 점점 더 아는 테만 하기에 애쓰는 것을 보면 우습고도 한심한 생각이 난다”<sup>151</sup>고 탄식하는가 하면, “엇던 사람이던지 어머니 업시 태어난 사람이 업슬 것이요 누의나 족하를 아니 가진 사람이 업슬 것인즉 어느 집에라고 여자나 녀학생 업는 집이 업스련만은 남자와 남학생들은 자기집 자기친척 이외의 여자 녀학생은 희롱거리로 알고 잇”<sup>152</sup>다고 비판하고, 신앙을 강제하는 여학교를 향해 “종교선전의 이용물”로만 학교를 경영하고 있으며 이는 “너무 편협하고 천박한 것”<sup>153</sup>이라 직격하거나, “가정주부가 될 운명”인 여학생들에게 물리나 영어가 아닌 “상식을 배워주라”<sup>154</sup>는 가부장의 명령과 달리 여학교 교육이 “너머나 사회과학을 무시하고 봉건적 교육을 하고 잇”어 “사회에 일분자로서 개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사상에 낙오자가 된다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세계대세가 엇더한지 우리들의 형편이 엇더한지”를 알 수 있는 교육을 열망하면서, “우리 학생을 본위로 한 엇더한 조직체”, 즉 “학생의 이익

149 박희도, 앞의 글, 22쪽.

150 조동식, 「풍기와 조선여학생」, 『신여성』 제7권 10호, 20쪽.

151 송화자, 「여학생 잘못·남학생 잘못·남학생들의 가진 폐단」, 『신여성』 제2권 7호, 49쪽.

152 홍○순, 「여학생 잘못·남학생 잘못녀자를 희롱거리로 아는 심정」, 『신여성』 제2권 7호, 53쪽.

153 동덕여고 김영아, 「정신여학교평판기」, 『신여성』 제5권 3호, 41쪽.

154 주요섭, 「여자교육개신안」, 앞의 책, 10쪽.

을 도모하며 사회과학을 연구하며 친목하는”<sup>155</sup> 단체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이 다른 소녀들, 박명하거나 불량한 소녀를 내파하면서 가부장성과 ‘불화하는 소녀들’에 의해서 소녀성은 고정되지 않고 다시 언제나 협상 가능한 것이 된다. 이 글은 이 불온한 소녀들의 근대, 혹은 소년의 근대가 누락하거나 폐제한 소녀들의 잊힌 근대를 복구하기 위한 시론이다.

## 참고문헌

### 기본 자료

『신여성』

『소년』, 『신여자』, 『여자계』

『제국신문』, 『황성신문』, 『태극학보』, 『대한매일신보』,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광수, 「소년에게」, 『이광수전집』 제17권, 삼중당, 1962, 237-240쪽.

황호덕·이상현 편,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영인편』 I-V, 박문사, 2012.

### 단행본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옮김,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6, 151-179쪽.

가와하라 카즈에, 양미화 옮김, 『어린이관의 근대』, 소명출판, 2007. 9-72쪽.

김경연, 『근대 여성문학의 탄생과 미디어의 교통』, 소명출판, 2017, 99-101쪽.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278-283쪽.

김부자, 조정희·김우자 역, 『학교 밖의 조선여성들』, 일조각, 2009, 76-77쪽, 117쪽, 247쪽.

김은하 외, 『소녀들-K-pop 스크린 광장』, 도서출판 여이연, 2017.

김진균 외,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 권력』, 문화과학사, 1997, 277-313쪽.

박찬승, 『민족주의 시대-일제하의 한국 민족주의』, 경인문화사, 2007, 103-

---

<sup>155</sup> 이정순, 「사회과학을 우리에게-여학생으로서의 원망(願望)」, 『신여성』 제4권 1호, 12-14쪽.

117쪽.

소영현, 『문학청년의 탄생』, 푸른역사, 2008.

\_\_\_\_\_, 『부랑청년 전성시대』, 푸른역사, 2008.

손인수, 『한국여성교육사』, 연세대학교출판부, 1977, 253쪽.

엄미옥, 『여학생, 근대를 만나다-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여학생』, 역락, 2011, 145쪽.

연구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 『신여성』, 한겨레신문사, 2005, 13쪽.

이효덕, 박성관 옮김, 『표상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2, 212쪽.

정요섭, 「3·1운동과 여성」, 『한국근대여성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87, 42-58쪽.

천정환, 『시대의 말 욕망의 문장』, 마음산책, 2014, 227쪽.

## 논문

권보드래, 「연애의 형성과 독서」, 『역사문제연구』 제7호, 역사문제연구소, 2001, 101-130쪽.

김미지, 「식민지 조선의 ‘소녀’ 독자와 근대·대중·문학의 동시대성-일본어 문학과 일본어 잡지 독서 경향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0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4, 7-35쪽.

김복순, 「소녀의 탄생과 반공주의 서사의 계보」, 『한국근대문학연구』 제9권 2호, 한국근대문학회, 2008, 203-234쪽.

김주현, 「불우소녀들의 가출과 월경」, 『여성문학연구』 제2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449-483쪽.

김혜곤, 「『어린이』(1923~1935) 소녀서사에 나타난 소녀 재현 양상과 젠더 인식에 관한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석사논문, 2019.

박길수, 「천도교소년회 초기 활동 연구-『천도교회월보』를 중심으로」, 『방정환연구』 제5호, 방정환연구소, 2021, 67-108쪽.

박숙자, 「근대적 주체와 타자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어문학』 제97집, 한국어문학회, 2007, 267-289쪽.

배묘정, 「제국주의와 소녀규범」, 『일본연구』 제51호,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19, 195-202쪽.

성강현, 「소파 방정환의 일본 유학시기 활동」, 『방정환연구』 제6호, 방정환연구소, 2021, 149-183쪽.

손성준, 「대한제국기 잡지의 정치성과 애국운동의 접변-『소년한반도』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1권 2호, 한국근대문학회, 2020, 203-232쪽.

이기훈, 「1920년대 ‘어린이’의 형성과 동화」, 『역사문제연구』 8호, 역사문제연구소, 2002, 9-44쪽.

\_\_\_\_\_, 「청년, 근대의 표상-1920년대 ‘청년’ 담론의 형성과 변화」, 『문화과학』 제37호, 문화과학사, 2004, 207-227쪽.

장석홍, 「근대 소년운동의 독립운동사적 위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5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253-276쪽.

최배은, 「한국 근대 ‘소녀소설’의 ‘소녀’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53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4, 111-138쪽.

최은경, 「근대일본 소녀소설에서 보는 ‘소녀’ 표상」, 『일본근대학연구』 제42집, 한국일본근대학회, 2013, 177-183쪽.

한기형, 「『신청년』 해제」, 『서지학보』 제26호, 한국서지학회, 2002, 249-250쪽.

한지희, 「최남선의 ‘소년’의 기획과 ‘소녀’의 잉여」, 『젠더와문화』 제6권2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3, 125-148쪽.

## Abstract

The Birth of the Modern Girl and the Creation of the Girlhood

Kim, Kyung-yeon

This paper first tried to inquire about the aspects of how the gender symbol of ‘girl’ discerned from ‘boy’ was constructed and discussed in order to explore the modernity of ‘girl’ that existed outside the composition of ‘boy’ amid the patriarchal plans that attempted to embody ‘Boy Korea’ and imagined ‘boy (boyhood)’ as the subject to drive ethnic reformation since the modern enlightenment period.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d the circumstances around the early and late 1900s and 1910s, when the new word ‘girl’ was coined by modern media, and how ‘girl’ was conceived as a symmetric (asymmetric) symbol of boy through ‘female students,’ who acquired visible presence with the expansion of education for women in the 1920s and on. In particular, *New Women*, the first popular magazine that claimed to represent female students, was reread as a convincing original medium that invented ‘girl (girlhood)’ as a modern symbol. *New Women* played the role of a full-scale public sphere to discuss female students in adolescence and a medium that formed an imaginary community of ‘female students and girls’ by selecting female students as readers or writers. However, in *New Women*, female students and girls were depicted as targets of gaze instead of subjects. Rather than pronouncing themselves, they were frequently spoken for. In other words, amid the patriarchal desire and anxiety to discipline girls into good wives and wise mothers of the future, the ‘girlhood’ or femininity of teens in puberty was shaped as an ‘innocent but ignorant mind vulnerable to impulse and temptation.’ ‘Girls’ were stressed as naive yet dangerous beings who always need protection and surveillance. However, such patriarchy or ‘girl (girlhood)’ produced by patriarchy that dominated *New Women* was always and already being destroyed by girls in the real world who claimed to be ‘different girls’ doubting and opposing it. That is, the ‘girlhood’ or ‘image of girls’ became negotiable instead of being fixed because of the ‘discordant girls’ who cracked patriarchy while imploding delinquent girls. This paper is an introductory exploration to recover the modern times of these rebellious girls or the forgotten modern times of girls omitted by the modern times of boys.

Key words: Modern, girl, boy, girl student, girlhood, bad girl, “New women”

논문제출 / 2023. 11. 15.

논문접수 / 2023. 11. 23.

게재확정 / 2023. 12. 07.